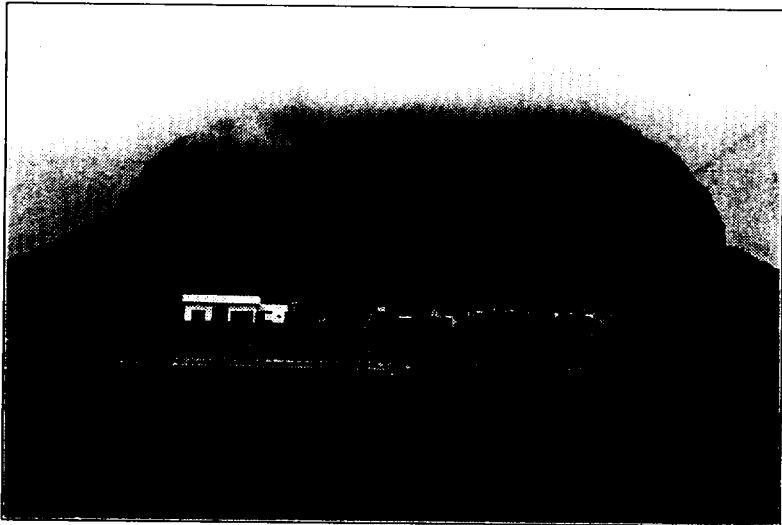


■ 현지학술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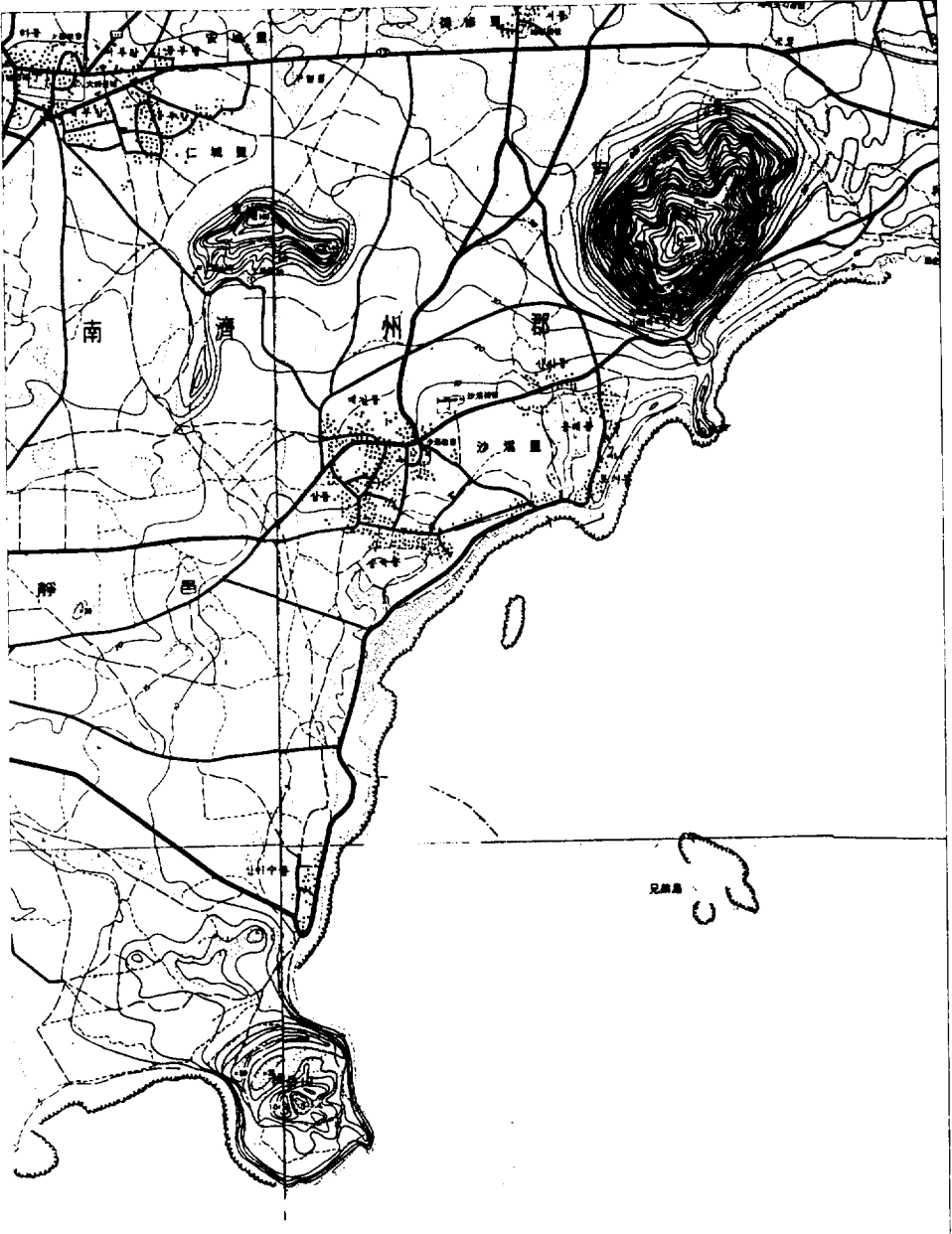
南濟州郡 安徳面 沙溪里

1998년 6월 25일 ~ 6월 27일 조사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산방산>



社會背景

차 례

1. 지리적 환경
2. 역사적 배경
3. 인문환경
4. 산업구조

1. 지리적 환경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는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부산업도로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계리는 화순과 대정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산방산과 단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마을이다.

사계리는 기상의 반응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며, 몬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한해협 중앙에 태평양과 대치하여 있으므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사계리의 영평균 기온은 15℃~15.2℃이며, 가장 추운달 1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5.6℃이고,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평균 최고기온은 26.3℃이다. 여름철에는 동남계절풍지대에 속하고,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지대에 속하고 있으며, 1년에 수차례 강풍이 불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지역이다.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12~3월까지 약3개월간 지속되며, 6~8월은 동남계절풍의 지배를 많이 받고, 4, 5, 9, 10월은 해륙풍 교차가 심하고 때때로 양자강유역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통로로 말미암아 바람이 강할 때가 많은 편이다. 특히, 8, 9월에는 남양지방에 발생한 바람으로 인한 25% 이상 태풍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힐 때도 있다. 강수량은 제주도에서는 제일 적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연간 강수량은 1,200mm~1,800mmdp에 달하고 있다. 특히 5~8월까지 연간 강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춘기로부터 여름철까지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일조시수는 2,499hr로써, 제주시 2,069hr, 서귀포 2,035hr에 비하여 연간 총일조시수는 사계리가 훨씬 많은 편이다. 사계리의 토양은 砂質土와 치양토 중심이며,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표고 70m 이상에 위치하고 있고,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하여 경작지로 매우 우수한 편이다. 토양의 색은 암갈색이며, pH5.8, 염기성 양이온 Ca, Mg, K는 1.2me/100g정도이고, 유기성 함량은 9.0%, 인산 함량은 65.3 정도이다.

사계리는 대정동, 용해동, 송죽동의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사계리 마을 사람들이 임의대로 나눈 지역이 있다.

대전동은 11개의 반의 310여 가구, 용해동은 7개반의 220여 가구, 송죽동은 9개반의 270여 가구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사계리 논지 총면적>

논지총면적	전	과수원	답	임야	기타
7.88	4.2	0.4	0.06	1.9	1.32

(사계리 리사무소 자료 단위: km²)

사계리 마을의 식수로 이용되던 큰물은 예전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 가뭄이 크게 들면 덕수리, 서광리, 동광리 주민들에게 식수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이외에도 새미압(사계초등학교 앞), 봉애못(감자공장앞)이 있다.

사계리 마을의 주요 지명은 다음과 같다.

- 산방산 : 사계리 마을 동쪽에 위치
- 거문질(현 사계리) : 대정향교가 위치해 있어 선비들의 왕래가 많았는데 도둑들이 길목을 지키다가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귀중품 강탈을 일삼았다는데서 거물로(巨物路)로 불렸다.
- 황우치(黃牛峙) : 사계리 향만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지세가 황우(黃牛) 두각처럼 생겼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 연대목 : 사계리 용머리 동산에 위치해 있고 옛날 왜놈들이 제주를 침입 약탈을 임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났으며 동네 주민들이 바닷가가 잘 보이는 이곳에서 망을 보며 왜놈이 나타나면 주민과 이웃 마을에 연기등으로 신호를 보냈다하여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
- 신맛이 동산(화장터) : 사계리 덕수 동대합실 아래 위치해 있다. 인근에 광정당 사당이 있었으며 신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6·25 당시에는 화장터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 절터왓 : 사계리 양가물 위동네에 위치해 있다. 옛날 절이 있었던 자리이므로 절터왓이라 불리며 지금은 절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총(무덤)이 있다.
- 당머리 : 사계리 산방산 서쪽 기슭에 있고 큰물당, 개당 등이 있었는데 이들보다 당위쪽에 위치했다 하여 당머리로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납작한 큰 왕석이 있어 제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당이 없어졌다.
- 용머리 : 지형이 마치 용머리를 쳐들고 바다로 뛰어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여 명명됐다.

2. 역사적 배경

1) 유래

사계리는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제주군 안덕면에 속한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설촌 유래에 대해 논거가 될 만한 사적 기록은 없다. 단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560년경(조선 선종 15년) 金海後人이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는가 하면, 1630년(조선 인조 8년) 砂溪, 德修, 東西廣 등을 포함하는 白(紫)丹里에서 분리되어 今勿路里라는 里名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설, 오랜 옛날 '큰물동네'에 梁家물이라는 부락이 형성되어 梁氏가 살았다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어느것이나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李源鎭의 <耽羅志> 建置 革 등 몇 개의 사서에 의하면 1300년(고려 충렬왕 26년) 제주도를 동서도로 나누어 縣村을 설치할 때 15개 현촌이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그 중 사계리와 관련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山房縣이다. 혹자는 그 縣社로 보이는 古墳郡이 산방산 西麓에 남아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縣社와 무덤이 동일지역에 형성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방현의 治所가 지금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1416년(조선 태종 16년) 邑制가 시행될 당시에는 산방현의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大靜縣의 명칭이 새로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대정현으로 개칭 내지 대체된 때문인지도 모른다.

삼읍제란 한타산을 경계로 산북에는 제주목을 두어 목사를 배치하고, 산남에는 동서로 양분하고 동쪽에는 정의현을, 남쪽에는 대정현을 각각 설치하고 현령을 두어 다스리게 한 것이다. 이때 제주목에는 9개 현, 정의현에는 3개 현, 대정현에는 2개 현을 각각 소속시켰다.

그후 1609년(조선 광해군 1년) 坊里制가 설치될 때 本州에 중, 좌, 우 3면, 정의에 중, 좌, 우 3면, 대정에 좌, 우 2면을 각각 설치하고, 면

에는 都約正 1명, 約正 2명, 直月 3명을 두었다.

그런데 정조년간(1780~1789)에 이루어진 <濟州邑誌> 중의 大靜縣誌에는 당시 대정현의 좌, 우 2개 면에 22개 리가 소속되어 있다. 즉 좌면에 10개 리, 우면에 12개 리가 소속되었는데 그 중 우면의 今勿路里가 지금의 사계리이다. 이것이 사계리의 고명으로는 최초이며, 속칭 ‘거문질’의 한자화가 아닌가 한다. 당시 今勿路里의 인적 상황을 보면, 민호 75호에, 인구는 남자 196명, 여자 240명이었다. 따라서 사계리가 형성된 것은 1780년대로부터 훨씬 이전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1899년(광무 3년)의 <大靜郡古誌>에는 중면에 11리, 좌면에 14리, 우면에 10리의 3면에 35리가 소속되어 있다. 그 중 중면의 동사계리와 사계리가 今勿路里에서 변질되고 두 개의 리로 분리된 명칭이다.

그런데 이 동일 명칭인 두 개의 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은 1914년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통폐합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 몇 개 집안의 호구단자와 조선 헌종 6년(1840년)에 작성된 고문서 <今勿路里尊位警民長書冊>을 살펴보면, 대정현에 요청하여 今勿路里를 현 사계리로 지명변경했음을 알 수 있다.

현 사계리는 행정구역상 대전동, 용해동, 송죽동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전동 : 사계리 2252-2번지 리사무소 일대로 옛날 柳氏인 사람이 큰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츰 이 밭에 주민들이 이주해 와서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 용해동 : 사계리 112번지에 위치한 용머리 일대로서 이 마을은 본디 ‘큰 기름 동네’, ‘굴동네’, ‘큰물동네’, ‘성콤동네’, ‘산방동네’, ‘토끼동네’ 등에 속하였다가 1940년경에 용머리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동네라 하여 독립된 동네로 분동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송죽동 : 사계리 2325번지 일대로 약 260여년 전에 ‘솔대(射臺)’를

세우고 무예를 연마하며 활을 쏘는 자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후 '솔대'의 발음에서 뜻을 취하여 솔대(松竹)로 불리웠고 차츰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마을이 형성되면서 한자 표기화에 의해 '송죽동(松竹洞)'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11) 포구

용해동 밑으로 바닷가에 포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포구는 오래전부터 육지와 제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제주의 감자, 고구마, 미역과 같은 특산물을 실어 군산이나 강정 등의 포구를 통해 육지로 조달했고 목포에서 소금을 싣고 와서 제주 전역에 공급하는 구실을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에 의해 중국에 끌려가 대구릿배를 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 풍선(풍선과 같은 뜻이 달린 배)을 사서 부산, 마산, 여수, 군산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배가 낡으면 목포에서 팔아 다시 구입했다고 한다.

이 포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토기동이라 불렀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원래 이 지역이 모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위해 모래를 팠더니 그속에서 흙이 나왔다고 하여 土起洞이라 하였고, 다른 하나의 설은 예전에 고산, 신평, 구엄 등지에서 만들어진 토기를 등짐을 지어 이곳에서 육지로 운반했다고 하여 토기동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구는 60여년 전에 확장하여 새로 지어졌다.

<제보자 : 김술생(남·90세)>

12) 고문서

綾城具氏家가 사계리에 거주하게 된 연원은 具普萬의 제주유배로부터 비롯된다. 대정읍 土幕境 腮口田(시구왓) 具濟國의 묘소 앞에 세워져 있는 <義士通德郎具濟國之碑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鎭海縣監 具普萬이 고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주에 유배되어 거의 一〇年을 귀양살이했는데, 이때에 晉州姜公의 딸을 아내로 맞아 들어 公(具濟國)을 낳았으며(英祖 42년 1766년), 公의 나이 겨우 네 살때에 방면되어 서울로 돌아갔다. 제주에 具氏家가 형성된 것은 公으로부터 비롯된다.

(揚式原從功臣通訓大夫行鎭海縣監韋普萬卽公之考也 適以邑事 被謫入濟 殆謫十年 乃娶晉州姜氏公之女 生公於乾隆丙戌七月二十六日 而年才四歲 蒙恩還洛 濟之有具自公始焉)

沙溪里 마라못 지경에 있는 <人島祖具普萬之碑文(永世子孫追遠望* 碑)>에는 “具普萬이 유배된 것은 鎭海縣監으로 재직할 때이며, 그 謫居地는 大靜縣上勿路里(웃거문질)이다(公莅任鎭海時 以邑事被謫 謫下濟州大靜上今勿路里留)”라는 내용이 있다.

2) 역사적 사건

(1) 하멜(Hamel) 기념비

네덜란드 선박과 스페로우 호크(Sparrow Hawk)호가 선원 64명을 일본에 교역차 항해하다가 태풍으로 1653년 8월 16일 제주도(대정현 동남방)에, 표착, 선원 64명 중 3명이 생존하여 서울에 압송되었으며, 그들은 서울, 여수 등지에서 13년간 생활하다가 일본으로 탈출, 귀국한 후 동선박의 서기였던 헨드릭 하멜(Hendrick Hmeal)이 한국 및 제주도를 소개한 표류기를 저술하여 서구에 한국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는 바, 그 사실을 기념하고 한국과 네덜란드와의 우호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국제문화협회와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공동노력으로 하멜기념비를 제주도에서 건립하기로 합의하였다.

1980년 4월 1일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과 네덜란드 대사 및 설계자가 제주도 현지를 답사하고 하멜이 상륙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에 기념비 건립 장소를 선정하였다.

(2) 4·3사건과 백조일손위령비

사계리는 4·3사건 당시 가까운 곳에 군부대가 있어 특별한 관련자가 적었지만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밀고로 무고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 사계리 내에는 학살터가 없고 피해자들은 송악산 분화구로 끌려가 사살되었다. 나중에 그 시신을 찾지 못하여 함께 매장을 하니 시신중에는 사계리 사람이 아닌 이들도 있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조상은 일백서른 둘이요 지손은 하나이다'라는 뜻의 '백조일손위령비'를 세웠다. 이외에도 6·25사변 참전 용사들의 혼을 기리는 충혼비가 세워져 있으며 사계리 덕수 동대합실 아래에 있는 산맞이 동산은 6·25사변 당시 화장터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3. 인문환경

사계리는 1997년 12월 31일 현재 총 803가구에 인구는 2,560명이다. 총인구에서 성별로는 남자 1,244, 여자 1,136명으로 여자가 조금 많다.

리별	세대(가구)	인구(명)		
		계	남	여
사계리	808	2,560	1,244	1,136

(사계리사무소)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가구수	인 구		
		계	남자	여자
1968	927	4,426	2,128	2,298
1977	718	3,040	1,435	1,605
1987	731	2,677	1,256	1,421
1997	808	2,560	1,244	1,316

1968년에서 1977년 사이의 인구 변동을 보면 많은 인구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1960, 70년대의 산업화로 이농현상이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1987년에 비해 현재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회적 유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계리가 관광명소로 알려진 것도 인구가 늘어나게 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계리에는 45개의 성씨가 분포되어 있는데 성씨별 가구는 다음과 같다.

성씨	金	李	姜	高	趙	柳	任	林	宋	梁	許
호수	191	139	87	40	32	31	24	23	21	20	
성씨	甲	慎	吳	具	文	鄭	池	朴	韓	玄	崔
호수	19	18	11	8	8	7	7	6	5	5	
성씨	千	洪	卞	尹	禹	張	夫	黃	元	白	
호수	4	4	3	3	3	3	2	2	2	2	
성씨	權	郭	那	都	於	安	銀	左	晉		
호수	2	1	1	1	1	1	1	1	1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주요 성씨는 김, 이, 강, 고씨 순이다.

사계리의 자체단체로는 청년회, 작목반, 노인회, 초등학교 총동창회, 어촌계, 부녀회,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있다.

사계리 1731-2번지에 위치한 사계초등학교는 지난 1946년 4월 1일 학교설립이 인가되면서 그 해 12월 12일에 사계공립국교로 개교하였다. 그리고 1996년 3월1일 사계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사계초등학교의 교직원 현황과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유치원	양호	일반직	식품위생직	기능직	일용직
남	1	1	1	2					2	
여			1	3	1	1	1	1		1
계	1	1	2	5	1	1	1	1	2	1

(사계초등학교)

사계병설유치원의 원아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아수	비고
남	12	만 5세
여	8	
계	20	

이외 기관단체로는 리사무소, 우체국, 보건 치료소, 산방산 관리사무소, 안덕농협협동조합 사계지소, 어촌계,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감귤작목반, 토마토작목반이 있다. 사계리의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교회(한국기독교 장로회), 절(산방산, 천불사, 광명사, 보문사, 덕산정사), 당(큰물당, 일회당, 개당 등 4개)이 있다. 또한 이 마을에 있는 대정향교는 특이할 만 하다. 대정향교는 1416년(조선 태종 16년) 조원진 목사 당시 대정현 성내에 창건하였으나 북성에서 동성 밖으로 옮겼으며 1653년(효종 11년) 이원진 목사 때에 현재의 자리(사계리 3126번지)인 초산 아래로 옮겼다. 그 후 1669년(현종 10년) 이황 목사 때에 조문혁이 대성진을 중수하였고 1668년(숙종 14년)에 목사 이회룡이 다시 중수하였다. 또 1752년(영조 28년) 목사 윤구제 때 현감 이회춘이 중수하고 1772년(영조 48년) 현감 이빈은 명륜당과 전사청 서제를 중건하였다.

또 1835년(헌종 원년) 목사 박장복 때 현감 장시열이 대정전을 중건하였다. 순조 때 현감 변경봉이 주자필을 본받아 명륜당이라는 액을 내걸었으며 대정인 훈장 강사공은 대정현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에게 청하여 '의문당' 액을 제시하였다. 대정향교는 해마다 4월 9일에 尊祭를 봉향하고 있다. 대정향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4. 산업구조

1) 농업

사계리는 토양 및 기상 등의 환경조건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농업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농업의 구조양상도 옛날에는 자급자족의 식량작물에서 근래에는 경제작물 위주인 감자, 고구마, 맥류 등의 특용작물과 마늘 등의 야채작물 재배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열대 및 아열대 환금작물 생산 체계와 시설농업 양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절별 농산물 수확상황을 보면 수박(하우스 재배)은 3월말에서 4월중에 파종해서 5월 중순에 수확하며, 토마토는 2월말에서 파종해서 9월말에서 3월말에 수확한다. 감자는 1월초, 8월초에 파종, 6월, 12월에서 4월에 수확하며 마늘은 9월에 파종, 5월 중순에 수확한다. 사계리는 과수원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산방산으로 인해 바람이 많이 불어 과수를 재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어업

사계리의 어업 활동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촌계 조합원수는 남자 65명, 여자 153명 총 2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잠녀(해녀)는 86명이고 툷 채취(공동작업)은 67명이다. 잠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수(명)	0	23	35	22	3

(사계리 어촌계 자료)

잠녀의 작업일수는 한 물 전날부터 칠 물까지 8일 동안 작업하고 나머지 7일은 쉰다. 잠녀의 수입은 해산물의 금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소라 금채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이고 전복 금채기간은 10월 1일부터 말까지이다. 잡녀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큰 잠수	작은 잠수
금채기간이 없는 경우	월평균 105~200	월평균 50~100
금채기간	월평균 20~100	

(사계리 어촌계. 단위 : 만원)

한편 동력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톤이상	10톤 이상	5톤 이상	5톤 미만	계
6척	4척	8척	49척	67척

(사계리 어촌계)

생산물별 작업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선어	소라	전복	오분자기	보말	툇	감태	해삼	성게	문어
실적	52,381	72,000	240	1,000	770	8,000	50,000	500	210	1,600

(사계리 어촌계)

어촌계에서는 2년마다 풍우제를 지내는데 날은 대표들이 심방에게 가서 받아와서 정하는데 대략 음력 2월 초가 된다. 이외의 상업활동을 살펴보면, 구멍가게를 포함한 슈퍼마켓 11, 문방구 2, 미장원 1, 생가게 2, 식당 18, 낚시점 4, 민박집이 13곳이다.

- 조사자 : 오현심(95), 양소영(95), 양혜은(96), 김은지(96), 강은하(96), 강미영(96)

方 言

차 례

1. 머리말
2. 조사 어휘
 - 1) 신체명
 - 2) 동물명
 - 3) 기구명
 - 4) 식물명
 - 5) 바다와 관련된 어휘
 - 6) 지명
- ※ 부록

1. 머리말

본고는 1998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덕면 사계리에서 이루어진 학술조사 중 '방언'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행해진 예비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작성되었다. 조사는 주로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녹음과 필기를 병행하였다.

사계리는 총 808세대이며 마을로 농업(양배추, 마늘)과 어업을 생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3개의 작은 부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용해부락(토끼동네)·대전부락(섯동네)·송죽부락(알동네)이 그것이다. 방언조에서는 사계리가 바다를 끼고 있어 농업보다는 어업에 보다 많은 조사

를 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 용해부락을 중심으로 바다와 관련된 어휘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다. 조사기간 내내 비가 와서 불편함이 따랐지만 동네 어른들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다.

방언조사를 마치고 조별 정리 시간에 조사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먼저 '제주방언의 일반형'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조사된 어휘들을 수록함에 있어서 'ㅇ'와 '·', 'ㅈ'와 'ㄱ'의 구분 문제였다. 제주방언의 일반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는 어느 지역의 방언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 갈 뿐, 사전 준비와 배경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속 시원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녹음된 음성을 조원들이 반복하여 들으면서 의견을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그 해결점을 찾진 못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애초에 의욕이 앞서 탄탄하고 폭넓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 보고 내용이 훌륭한 학술자료로 이용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회의적이지만, 이번 학술조사가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만큼 배우는 자의 훈련 과정 또는 경험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성실하려고 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방언의 개념, 필요성, 조사시 유의점 등은 예비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생략하기로 하며,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을 참고하여 그 표제어들을 '제주방언의 일반형'으로 삼고 함께 신는다.

<제보자>

이정옥(여·80세), 고창남(남·60세), 천옥선(여·85세), 정동선(남·69세)

2. 조사 어휘

1) 신체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사계마을의 방언형	비고
목	야가기	야가기	
엉덩이	잠지괘기	잠지뻬기	'불기'의 낮춤말
복사뻬	귀마리팡	설문팡	
얼굴	양지	양지	
허리	존동이	존동이	
겨드랑이	저깁이	적깁이	

2) 동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사계마을의 방언형	비고
거머리	거멸	거미	
메뚜기	말축, 만축	말축	
개똥벌레	불한지	불란지	
진드기	진독, 진독	진독	진되
개구리	굴개비	굴개비	개고리
지렁이	지렁이	개우리	
벼룩	베룩	베룩	
파리	프리	프리	
말	몰	몰	
뱀	베염, 버염, 베미	베염	구렁이, 물괘기(독사)
돼지	도새기	질토새기	
개미	개염지	게염지	

3) 기구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사계마을의 방언형	비고
국자	남자	남자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사계마을의 방언형	비고
밥자	우굼	우굼	당그네
머리빗	얼레기	얼레기	창빗(이 떠는 빗)
거울	색경	셋경	
쟁기	잠데	잠데	
보습	보섭	보섭	삼 비슷한 쇠조각
괭이	괭이	괭이	
도리깨	도깨, 도께	도께	곡식 터는 농기구
채룽	차룽, 채룽	쇠닥구덕	'구덕'은 일종의 그릇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애기 구덕, 질구덕, 곤느대구덕/그른대구덕).
키	푸는체	선비	밭갈이를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선비질) cf) 섬피
갈퀴	글쟁이	거낫	
맷돌	그레	그레	
연자매	돌방애, 돌방이	돌방애	
바가지	박세기	줄락박세기	cf) 파래박
절구	날방애	날방애	나무로 만든 방아(절구) cf) 도구방애(돌로 만든 절구)
장독대	상항	상항, 장항	
항아리	항	항, 항애	
찬장	살래	살래	
	빗창	빗창	전복 따는 도구

4) 식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사계마을의 방언형	비고
마늘	콍대사니	콍대사니, 대사니	
파	패마농	패마농	
감자	지슬, 지실	지슬	
벼	나룩	나룩	
벼이삭	나룩고고리	나룩고고리	
벼씨	나룩씨	나룩씨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사계마을의 방언형	비고
무	눔빠	눔빠	
채소	송키	송키	
나물	눔물	눔물	

5) 바다와 관련된 어휘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사계마을의 방언형	비고
미역	매역	매역	
조개	조개	어금	조갱이(조개 또는 조개의 껍데기)
떡조개	오분재기	바르	
옥도미	오토미	솔라니	
소라	구쟁기, 구쟁이	구쟁기	
성게	구살	구살, 귀살	
홍합	홍압	합계	
멸	멜	멜	
어부	보제기	어제기, 보제기	
주낙	주낙	주낙	고기 잡는 낚시줄
오징어		이까	끄슴바리(오징어 잡는 도구)
해녀	좁녀	좁녀	두름막, 망시리, 어음이 연결된 도구를 가지고 물질.
해산물	몸, 보말, 툴, 청각, 우미		
바닷고기	어랭이, ㄱ랭이, 우럭		
기타	도대(등대), 풍선(돛단배), 댄마새끼(작은 배)		

6) 지명

섬[島]	홀애미섬('여'의 일종), 굴애기섬/굴리섬/성제섬('굴리'는 쌍둥이를 말함), 도깨섬(마라도 근처)
	옛지도에 '貫島'라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둘이 나란히 있어 서로 뻗 것 같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왓[田]	깁이왓(게가 특히 많이 잡힘), 보말왓, 개왓, 왕보리왓, 중뽕왓, 심술이왓

여	넙개여, 올쿠지벌러진여, 안동순여, 밧동순여, 앞여, 중여, 뒷여, 높은여, 숨은여, 너벅여(동그랗게 마당처럼 넓은 여), 여배파흔여, 군여/구녀, 납데기여, 절잔개여, 췌창여
	‘여’란 바다 속에 있는 작은 섬이나 해변 가까이 있는 바위로, 조수의 간만에 따라 물 위에 나타났다 잠겼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 이름의 유래를 밝혀보려 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개(補,포구)	절잔개, 넙개, 곱은개, 돛개
드르(野)	알드르(일본의 비행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빌레	출물빌레, 구넙빌레
왓[田]	강이왓(계가 특히 많이 잡힘), 보말왓, 개왓, 왕보리왓, 중뒤왓, 심술이왓
코지(곶)	부남코지(송악산이 자리한 곳)
	‘코지’란 바다 쪽으로 내밀어 있는 반도 모양의 땅을 일컫는다.
기타	고주터, 불칸터(집이 불 탄 자리), 굴계낭목(굴거리나무가 서 있는 서쪽 입구), 고장나목(산방산 일대 백일홍나무가 자생하는 지역), 구룡이(밭이 형성된 모습이 아홉 용의 머리를 닮았음), 냉이돌(산방산 정상, 전망 좋은 곳), 속밭(쑥밭), 만다리, 옷콧남밭, 칩동산, 콧대머리, 큰가름, 토끼물, 황우치, 붕어못, 사장밭(활 쏘던 터/ 슬대왓), 날콤구석, 거옥대, 베릿돌안진밭(‘베릿돌’은 벼루의 사투리), 절냥기, 사니물(마라도 배 대는 곳)

<부록>

참고로 조사 과정에서 녹음된 내용 중 비교적 청취가 용이한 부분을 실는다.

(1)

<조사자 : 도깨가 뭐파? 도리깨우파?>

어게. 마당질 허는 거 엇느냐게.

<조사자 : 옛날엔 타작하는 기계 어시난예.>

어게.

<조사자 : 벼는 여기도 나룩이랜 험니까?>

어, 나록. 지금은 농사 안햐주마는 우린 나록 싱거낭 무삯당 나록 심경, 나록 심그젠 허른 물 퍼냥, 물 푸는 파래박 있다, 우린. 섬비, 느넨 섬비 모른다. 저 들밭디 나무. 그거 위왕 들러멩 끄성으네 나오라그네, 그기 무우 심고 햐낫주.

<조사자 : 여기는 보리 많이 햐니까?>

그건 옛날에. 지금은 마늘 많이 현다.

<조사자 : 보리 이삭 뭐랜 햐니까? 고고리랜 햐니까?>

어, 고고리. 보릿고고리. 우리 옛날에 이, 막 못 사난 승년(흥년)지고 가난허영 먹을 거 어성 밀채범벅도 다 먹어나고.

<조사자 : 밀채범벅은 꿩로 만든거우파?>

밀, 밀 굴아난 주시.

<조사자 : 밀 굴아난 찌꺼기 같은 거마씨?>

어, 경 허난 못 먹어라. 느려가지 안햐. 경햐 그거 먹고 또시 물웃, 느넨 물웃 모를거여.

<조사자 : 그건 뭐마씨?>

이투루 밧디 나는 물웃 잊저.

<조사자 : 여기 요새 마농 많이 허지예?>

어, 마농 많이 현다.

<조사자 : 마농은 뭐랜 햐니까? 그냥 마농이랜 햐니까?>

어게. 마농이랜도 곱고 콕대사니랜도 곱고 대사니랜도 곱고.

<조사자 : 요기는 뭐랜 햐고 저기 멀리는 뭐랜 햐니까?>

요기 가까운 디는, 우리 옛날엔 김이왓. 저기 도대 세우고...

<조사자 : 도대는 뭐파?>

도대, 도대는 저거 아니가. 저기 세운 거.(등대를 가리키며)

<조사자 : 여기 바다에 나는 거 뭐 잇수파?>

이디? 바당에 이제 나는 건 소라 나고 솜 나고 귀살 나고...

<조사자 : 농사할 때 쓰는 기구는 어떤 거 이십니까?>

도깨, ㄱ레, 돌방에, 남방에, 낫, 팽이, 보섬.

<조사자 : 바다에 다니는 배는 옛날에 뭐랜 해낫수과?>

옛날도 배주게 무신.

<조사자 : 경해도 다른 말 어수과?>

풍선. 돛 달양 텅기는 거. 댜마새끼.

<조사자 : 댜마새끼는 뭇니까?>

댜마새끼는 꺾끄만한 배. 그것도 돛 달양 텅기는 거. 영 네 저성. 거 탕 옛날엔 굴리섬 갈 때 이어 사나, 이어 사나 허명 네 저성 가낫주.

<조사자 : 네는 노를 말합니까?>

어, 네.

(2)

<조사자 : 오분재기, 뭐랜 험니까?>

오분재기고라 바르랜 한다. 여기 사투리로(체보자 : 고창남)

<조사자 : 조개 같은 건 뭐랜 험니까?>

조개, 어금.

<조사자 : 이건 뭐랜 험니까? 뭐 험 때 씹니까?>

주낫. 고기 잡을 때. 낚시 바늘에 델 끼왕 바다에 강 뿌려낫 까라 앓 이민 고기가 물면, 가만 잇다그네 이거 땡경 들어오랑 다시 저녁에 또 델 사오민 다시 끼와그네 허고…….

<조사자 : 옥돔은 뭐랜 험니까?>

옥돔, 솔라니.

<조사자 : 해녀는 여기 말로 뭐랜 험니까?>

해녀, 줌녀.

<조사자 : 어부들은 마씨?>

어제기, 어부 고라 어제기. 보제기랜도 허주마는 어제기.

<조사자 : 오징어는 어떻게 잡습니까?>

오징어는, 저거 잇주게, 저거. 퉁글락헌 거, 감아진 거. 저거로도 허고, 저녁에는 끄슴바리도 허고.

<조사자 : 꼬슴바리는 뭐우파?>

밤에 그걸로 행으네 즐 매영 배로 솔솔 가 가민 오징어가, 오징어 고라 여기서는 이까앵 허주게 이까. 경행 끄는 것도 잇고, 한치도 마찬가지. 저걸로 밤에 불켜 애…….

<조사자 : 여기 여 많지예? 요 앞에. 여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요기 가민 납대기, 저기 가민 구녀, 또 저쪽에 가민 절장기, 또 저쪽에 가민 사니물, 사니물이랜 허른 마라도 배 대는 디. 그디가 사니물. 경허고 또 웃쪽으로 가민… 저… 저… 이쪽에 가민 어디고… 마을이름도 설쿰, 이긴 토끼동네.

<조사자 : 여기는 마을 몇 개로 이루어졌수과?>

이긴 세 개 부락으로. 저쪽 가며는 섯동네, 이쪽 가민 알동네, 여긴 토끼동네. 계난 표준말로는 대전부락, 송죽부락, 이기가 용해부락 이주게. 경행 세 개 부락으로 갈라졌주게. 이장은 흔 사람인디 부락장은 세 사람.

<조사자 : 어부들 나갈 때 복장은 어떻게마써?>

저 뭐꼬. 비우비, 고무옷, 장화.

<조사자 : 해녀는……>

고무옷. 건 기낭 고무옷이랜 허주게. 고무옷 나기 전에는 속옷, 아이들 앞에서 꺾기 뭐허주마는 팬티식으로 현 것이 이서.

<조사자 : 해녀는 물에 들어갈 때 테왁이영 굴쟁이영만 가정 갑니까?>

어게. 매역혈 때는 호미. 지금은 낫이랜 허주마는……. 전복 딸 때는 빗창, 지금 성계 같은 거 혈 때는 굴쟁이랜 현 거, 밧디 가민 풀 배는 거 잇잖아게. 그걸로 허고.

<조사자 : 해녀들 해산물 놓아두는 데는 뭐랜 됩니까? 테왁에 영이어진 거.>

아, 그거 망시리. 그 똥그렇게 매와진 나무ㄷ라 어음.

<조사자 : 섬은 형제도 밖에 없습니까?>

어, 저기 가민 마라도, 가파도, 넓개. 넓개랜 허는 디도 잇주게. 넓개, 또 홀애미섬. 홀애미섬은 뭇시나 허믄, 자리 뜨는 딘디 여가 조금 나왔주게. 물 들민 안보이고 물 싸민 보이는 연데, 그것만 별도로 잇으니깐 우리 생각에는 홀애미섬이라고, 혼자 잇으니까 홀애미섬, 홀애미섬 허는 거. 가파도 옆에 또 도깨도 있고, 도깨섬.

<조사자 : 여가 잘도 많다예.>

어게. 중여, 높은여, 앞여, 뒷여, 이쪽 오며는 높은여, 그런 식으로... 자리 뜨주.

<조사자 : 농사는 안 지엄수과?>

무사 안 지어. 마늘, 마농... 마늘 뿐.

<조사자 : 콤대사니마씨?>

어, 콤대사니. 쪽파ㄱ라 꽤마농. 양파ㄱ라 다마내기. 계란ㄱ라 독새기랜 허고.....

<조사자 : 갈퀴 같은 건 뭐랜 험니까?>

갈퀴, 까꾸리. 거낫, 거낫. 쇠스랑. 옛날 걸름 낼 때 세 발 달령 꼬부라진 거 행으네 쇠스랑.

<조사자 : 소 등에 안장 같은 거 하잖아예. 그건 뭐랜 험니까?>

쇠질매. 소질매.

<조사자 : 삼태기 같은 건 뭐랜 해마씨? 깨 같은 거 바람 영 내그네.....>

선비. 선비질 허는 거. 경허고 옛날에 조팏 벌령 두드리는거... 곰베.

<조사자 : 물건 담아 놓는 건 뭐랜 햐수과?>

어, 쇠닥구덕. 질구덕이랜도 끝나. 옛날에 남의 집에 쌀 부조행 갈 때 곱닥헌 바구니가 이섯주게. 것 고라 뭐랜 허느니? ...ㄱ는대구덕.

<조사자 : 도마 같은 건...>

돔베.

<조사자 : 국자는 뭐랜 햐수과?>

남자. 밥자는 우굽.

<조사자 : 향아리는 뭐랜 험니까?>

황. 향애. 몰항.

<조사자 : 머리 빗는 건 뭐랜 험니까?>

얼레기.

<조사자 : 거울은 마씨?>

색경. 또 얼레기도 좀 진 거 잇주게. 옛날에는 이 떠는 거는 창빋.

<조사자 : 선반 같은 거에 그릇 올려 놓는 건 뭐랜 험니까?>

살레. 이제 지금 찻장. 그릇 놓는 살레.

<조사자 : 홍합은 뭐랜 험니까?>

홍합ㄹ라 합제.

<조사자 : 동물 잇잖아예. 파리는…….>

프리

<조사자 : 벼룩은 뭐랜 험니까?>

배룩.

<조사자 : 개미는… 여기서…>

개염지.

<조사자 : 지렁이 같은 건 뭐랜 험니까?>

개우리.

<조사자 : 거머리 같은 건 뭐랜 험니까?>

거미. 건 거미랜 허주게.

<조사자 : 메뚜기 같은 건 뭐랜 험니까?>

말축.

<조사자 : 개구리>

굴개비.

<조사자 : 반딧불. 여름에 불 켜진 거 날아 다닙니게예.>

아, 그건 뭐꼬. 거 불란다. 불란지.

<조사자 : 진드기 같은 건 뭐랜 험니까?>

진독. 소에 거 뭐 허는 거, 진독.

<조사자 : 여긴 과수원 허는 데도 잇수과?>

이 동넨 아니주마는 저쪽 동네레 가믄... 많아.

<조사자 : 미깡낭이랜 허지예?>

어, 미깡낭은 맞고.

<조사자 : 응애는 응애랜 험니까?>

어, 짓도 맞고.

<조사자 : 장독대 같은 건 뭐랜 험니까?>

장항.

<조사자 : 바가지 같은 건...>

굴락박새기. 옛날엔 그릇이 없어노니까 두루박 모양으로 헌겨 해가지고 쫄라가지고 물 떠먹엇거든게. 거 이제 어디 가믄, 민속촌 가믄 그런 거 이실거라게. 두루박 같은 거 영 쫄랑 물 떠먹고 헛주게. 계난 그것7라 굴락박새기, 굴락박새기 허는거주게.

<조사자 : 양지여, 눈까리여 하잖아예. 그런 건 여기도 똑 같습니까?>

어. 양지, 눈, 모가지... 야가기

■ 조사자 : 오종현(94), 강미란(96), 서주현(96), 안진아(96), 홍유경(96)

民 謠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잡역 노동요(축항쌓는 노래) |
| 2. 기능요 | 3. 비기능요 |
| 1) 노동요 | 1) 창민요 |
| (1) 농업노동요 | (1) 오돌또기 |
| ① 검질 매는 소리 | (2) 서우젯소리 |
| ② ㄱ레 ㄱ는 소리 | (3) 창부가 |
| ③ 밭 불리는 소리 | (4) 양산도 |
| ④ 다당질 소리 | (5) 너녕나녕 |
| ⑤ 명에질 소리 | (6) 달타령 |
| (2) 어업요 | (7) 기타 |
| ① 배 젓는 소리(벧노래) | 2) 동요 |
| ② 해녀노래 | (1) 애기 흥그는 소리 |
| ③ 이어도사나 | (2) 시집살이요 |
| ④ 해녀가 | |

1. 머리말

민요는 기원에 따른 것, 곧 노동을 한다거나 의식, 유희 등의 기능적 측면에 따라 분류하거나 민요가 노래로 불려진다는 점에서 음악적 구성 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분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노래의 사설의 내용을 중시한 문학적 측면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분류기준으로는 무슨 기능과 함께 불려지는가 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민요의 분류는 창자의 연령이나 성별, 주제와 내용, 가창과정 등 창자나 내용, 기능 등의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특히 우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민요가 불려지고 있는 창자층의 구분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 동요와, 성인 창자에 의해 불려지는 노래가 민간에서 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큰 의미의 민요항으로 묶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노동요로서 일노래와 장례의식과 함께 불려지는 의식요, 놀이기능과 함께 놀이를 진행시키거나 놀이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불려지는 유희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성과는 관계없이 노래의 서정성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노래한다는 즐거움 곧 노래 그 자체의 목적에 의해 불려지는 비기능요가 있다.

<분류>

1. 기능요

1) 노동요

- (1) 농업노동요 : 검질매는 소리, ㄱ레ㄱ는 소리, 밭 불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명에질 소리
- (2) 어업요 : 배 짓는 소리(벃노래), 해녀노래(이어도사나, 해녀가)
- (3) 잡역 노동요 : 축항쌓는 노래

2. 비기능요

1) 창민요

- (1) 오돌또기 (2) 서우젯소리 (3) 창부가 (4) 양산도
- (5) 너녕나녕 (6) 달타령 (7) 기타

2) 동요

- (1) 애기 흥그는 소리 (2) 시집살이요

2. 기능요

1) 노동요

(1) 농업노동요

농사 관행에 관련되는 여러 노동 행위에 따르는 민요로 ‘일노래’라고도 한다. 육지와는 달리 논농사가 거의 없고 밭농사가 위주이기 때문에 밭일에 따르는 노동요가 흔하다. 돌멩이가 지천으로 깔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밭을 밟고, 그 무더운 여름날 콩이나 조밭을 매며 가을이 되어 곡식을 타작하는 일년의 농사 행위는 엄청난 고역이었다. 과거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도민들에게 노래는 부치는 힘을 돋구거나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청량제와 같은 기능을 한 것이다.

① 검질 매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는 조나 보리, 콩 밭에 김을 매면서 부르던 여성 노동요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논이 없고 대부분의 땅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서 대부분 밭으로 사용되어진다. 특히 조밭에 김을 매는 일은 뜨거운 유월 염천 아래에서 긴 하루 쭈그려 앉아 행해지는 것으로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노래를 매체로 하여 그들의 심정을 표출하고 노래의 가락으로 일의 지겨움을 달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매기는 맷돌·방아, 해녀작업과 더불어 여성노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검질 매는 소리’는 농업노동요 중에서는 단연 손꼽을 만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기매기의 작업시간이 길어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에 알맞고 노동의 힘이 덜 들어 유창한 가락으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매기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서우젓소리’가 끼어 들어 ‘검질 매는

소리' 곡조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서우젓소리'의 유희적인 오락적 흥겨움이 지겨운 노동을 독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차용했던 것이다.

에~ 검질 짓고 골로진 밭에
어기여라 사대야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어서메영 어서가자
해는 보난 연락서산 다 지나가고
어서덜 메영 어서가제

<제보자 : 임기선(여 · 65세)>

어기여라 사대야 어기여라 사대야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어기여라 사대야 어기여라 사대야
검질 짓고 골로진 밭은
고분쇠로 여이명 가자
어기여라 사대야 어기여라 사대야

<제보자 : 송화숙(여 · 69세)>

어긴여랑 사대야
검질짓고 골느진 밭에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나고가라
어긴여랑 사대야

<제보자 : 이연옥(여 · 76세)>

이여 이여 이여동하라
나 놀래랑 새로 한질 가라
이여 이여 이여동하라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시똥라진 새 골로 간다
이여 이여 이여동하라
이 열 말랑 마당저라
이여 이여 이여동하라

<제보자 : 양병숙(여 · 83세)>

② ㄹ래 ㄹ는 소리

이여 이여~ 이여동 하라
아가야 울지마라 요 보리쌀 골아그네 즈냐 하영 먹게 이여동 하라
나 놀래랑 대로 한질로 가라 이여동 하라
애기야 울지말랑 ㄹ만히 누웁자라
아이고 기여 때리져부런 하여지리야 이여동 하라
물 아래 옥돌같은 내 딸이로구나
제비새 닭은 내 딸이로구나 이여동 하라
제비새 저 놀개닭은 우리 애기로구나 이여동 하라
울지마랑 요 애기야 요 보리쌀 솥앙 밥 해여 먹어사하느네
이여동 하라
해는 먼저 가고 밥은 어느 제랑 하리

<제보자 : 김봉효(여 · 82세)>

③ 발 불리는 소리

이러 이러 이러 이러 호르르 호르르
야 메누리야 거 콩으로 하영 놓으는 거 무시것고 콩 낚수다
발 불리멍 콩 놓으랜 해나 콩 골로난디 콩 놓으민 아니된다
이러이러

치와블라 콩 늬이랑
이러 이러 이러 이러 호르르 호르르
콕콕 오래 걸리민 조개 막앙 아니난다
재개 벌려똥 상패길에 오르기여 호르르르 여~
야 집이가그네 저 좁씨 아정오라
상패, 느네 지봉 지낭 좁씨드러가는 쪽으로 상패 위에 올라
가키여

콕콕 오래 걸리민 조개 막앙 아니난다
재개 돛단 보난 일급구 굴중의 옛날 중에
흔착 다리 몬 클러지고 흔착 다리 몬 처진냥 집이 오랑 갔져
저 가운디 머둘도 저거 저 감시동이네 밧디 이서 그른 저른
받앙 보난

작지 물어났져 집이강 쇠시랑 가정오라
이러 이러 이러 이러 호르르 호르르
저거 하나 큰 거 타블게 호르르르르

<제보자 : 문신화(여 · 88세)>

이히~ 이레 이야 후루루루루~
이 말 저 말 어랑어랑 걸어간다
에헤이야~ 오호~ 오로로로로~
이 말 저 말 어서 가자
간디가민 간디가고
간디오민 간디오고
오호호웅 호로로~ 호로로~야

<제보자 : 이성환(남)>

어허여 어러러러러
요만이더라 살랑살랑 걸~어~보자

어허 어러러러러
 1년에랑 동소당 요런 대목 부정한다
 어허 어러러러러
 한로산 비오곡 건구름 놀여가민
 마가 거들 듯 한다
 어허 어러러러러
 마가 거들 듯 하면 요 빛을 콩그루 ㄱ치 벌려차야 한다

<제보자 : 김봉이(여 · 74세)>

④ 마당질 소리

어야 오~ 요것도 생곡 저것도 생곡
 어야 오~ 배개명 드르라 헛도깨질 하지 말라
 어야 호~ 어야홍~

<제보자 : 문신화(여 · 88세)>

⑤ 멩에질 소리

허허요~ 어허요망~
 요 췌야 요 췌야 싹 돌려 사라
 어러러러러~ 어러러러~

<제보자 : 김봉이(여 · 74세)>

(2) 어업요

제주도는 섬이므로 거의 대부분 주민이 반농 반어의 생활을 꾸렸을 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많았다. 바다 역시 그들에게는 삶의 일터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업과 관련된 노동요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주 해녀들은 생계를 이끌어 갈 정도로 바다의 일에 종사했었고 근해뿐만이 아니라 멀리 일본 대마도, 중국의 청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해녀 작업을 하기도

했다.

① 배 젓는 소리(벧노래)

물에 들 때에 탄 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대부분의 민요가 그렇듯이 독창과 교창, 선후창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대부분 두 사람 이상이 노를 저으므로 선후창이나 교창이 주를 이룬다. 두 사람 이상이 민요를 부를 때 선창자가 뜻있는 사설을 부르고 나머지가 후렴을 받는다.

여기여디여차 여기여디여 여기여차 배놀이 가잔다
 치고치는 파도 소리에 단잠을 깨우고
 들려오는 요목소린 처량도 하구나
 여기여디여차 여기여디여 여기여차 배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만 살면 열녀라 하리아
 한강 바당 빠져서나 죽자네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여기여차 배놀이 가잔다
 녹수 청산에 배를 띄우니
 순풍에 돛을 달고 돌아만 오는구나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여기여차 배놀이 가잔다

<제보자 : 송화숙(여·69세)>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여기여차 배놀애나 가잔다
 우리가 살면은 멧 년을 살꺼냐
 막상에 산다흔들 단 팔십년이로구나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여기여차 배놀애나 가잔다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 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타누나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여기여차 배놀애나 가잔다

어스렁 달밤이 개구리나 우는고나
 뒷동산 솔나무에 매미가 우는고나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여기여차 뱃놀애나 가잔다
 한라산 중허리 모였던 저 구름
 바람만 불면은 간 곳이나 없구나

<제보자 : 김봉효(여 · 82세)>

② 해녀 노래 - 이어도 사나

'해녀 노래'의 전승은 드물게는 잠수작업을 위해서 가까운 바다를 헤엄쳐 나가면서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낚시거루나 범선을 타고 출가의 과정에서 오고 갈 때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부른다. '해녀 노래'의 가락에 고정적 사설과 유동적 사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를 짓는 시간과 장소, 노 짓는 동작이 노래의 가락이나 사설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기능관련 사설이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출가하면서 불리는 경우는 신세한탄, 사랑, 인생무상 등 해녀들의 일상적인 정의를 유동적으로 노래된다.

잠수질을 하러 나갈 때는 해산물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기원이 깃든 노래와 서정성이 강한 사설이 주로 전개되는데 서정적인 제재들은 신세한탄, 이별, 연모, 인생무상, 가족걱정 등이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빨리 가서 어린 아기 재설 조근 정든 낭군 밥을 주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배는 솔나무 벤데 솔락소락 잘도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삼시끓여 물질배왕 한푼두푼 모아놓은 금전
 정든 님 술값도 부족하다

<제보자 : 임중화(여 · 71세)>

이여싸나 이어도사나
설운 어멍 날 날때에 손에 팽이 지우라고 나를 낳았는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청취불능) 물에나 들게 양석싸라 섬에나 가게
이여싸나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지어라져라 요망지엄 아니나가만
우리야 배는 솔솔 가는 솔나무 밴데
(청취불능) 나는 듯이 솔락솔락 잘도나간다
쳐라치어 지어라져라
한강바당 물질홀땀 깊음알음 알건만은
우리 인생 자그만흔 여자의 속은 세상인간 몰랑사네
이여싸나 이어도사나
열다섯에 물질배왕 스물흔살에 장군되어
서시나비창 허리에 차고 원착폴엔 대왕메영
대천바당 한가운데에 고동생복이 많다해도 내 손 바깥 못캐더라
쳐라쳐라 지고나가자 요망지엄 아니나가만
얼말지고 나고나가리
해는지고 다저문 날에 골목골목 연기만 나고
어서지엄 어서가고 정든님덜 밥지어주고
(청취불능) 밥을 먹자
쳐라쳐라 지어라져라
요만흔면 우리나라형제 홀만흔다

<재보자 : 임기선(여 · 65세)>

이여싸~ 허이허 이여싸~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날지엄 어딜가나 진도야 바당 한골로나 들어나간다
이여싸~ 허이허 이여싸~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날부텃 타령을 말라 원사중에 놀던 배여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물 아랜 은과 금을 쌓였건만 높은 남과 열매로구나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우리 엄마 날 낳을 적에 안여 밧여 숨은 여로 마련하고 날
낳았던가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날부텅 고갯꺾치 불어나오고 원사중에 우리 갈 길은 멀어지고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요목조목 훑어 먹당 쉬엿 먹당 허리나 알로 감겨나 들라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눈이 맑은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우치고 뒷발로랑 거두나지명
어서 쌀쌀 건너가자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고갯꺾치 불어나가곡 우리 갈 길은 멀어나진다.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밴드레 끊어지면 부산 항구 기름 드레 없을 쏘나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흔목지면 남줄래에 허리지닥 배지닥 허라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멍먹흔게 지어나가자 아니지면 못가는다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내야 상착 부러지면 대마도 산천에 가새남에 없을소나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조 산천에 푸습새는 해년마다 푸릿푸릿 살아야 오린 마는등
우리아부 부모 한 번 가난 요냥 올 줄을 모르는고나

<재보자 : 김봉효(여 · 82세)>

이여도 사나 이여도 씨 이여도 사나

이 물에 이 사공아 저 물에 저 사공아
허리 땀에 화장화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싸
우리 배는 솔나무 배요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쳐라도 쳐라 이어싸나
읍내장에 향기나 가카 어여 나도 남들 존쳐 걸어감져

<제보자 : 이진생(여 · 87세)>

② 해녀가

우리느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녀들
비창한 살림살이 세상이어라
추운날 더운날 비가 오는 그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이 되면 돌아와
그 날의 (청취불능) 저녁 밥 진다

<제보자 : 변성도(남 · 77세)>

(3) 잡역 노동요(축항쌓는 노래)

축항(방과제)에서 돌을 지어 나를 때 부르는 노래이다.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이 서서 긴 막대를 연결해 무거운 돌을 나르게 되는데 그 때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부르게 된다.

허헛 이영창
이여이여이여차
디여차 디여차 디여차 디여차 디여디여디여차
지영차 지어지어지어차
어허 놓고 놓고 놓고 ...

<제보자 : 김봉이(여 · 74세)>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물 아랜 은과 금을 쌓였건만 높은 남기 열매로구나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우리 엄마 날 낳을 적에 안여 밧여 숨은 여로 마련하고 날
 낳았던가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날부텨 고갯꺾치 불어나오고 원사중에 우리 갈 길은 멀어지고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요목조목 훑어 먹당 쉬엿 먹당 허리나 알로 감겨나 들라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눈이 뭍은 서낭님이 앞발로랑 허우치고 뒷발로랑 거두나지명
 어서 쌀쌀 건너가자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고갯꺾치 불어나가곡 우리 갈 길은 멀어나진다.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밴드레 끊어지면 부산 항구 기름 드레 없을 쏘나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혼목지면 남줄래에 허리지닥 배지닥 흐라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멍멍하게 지어나가자 아니지면 못가는다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요내야 상착 부러지면 대마도 산천에 가새남에 없을소나
 이여씨~ 허이허 이여씨~ 허이허 이어도 사나
 조 산천에 푸습새는 해년마다 푸릿푸릿 살아야 오린 마는둥
 우리야 부모 한 번 가난 요낭 올 줄을 모르느고나

<제보자 : 김봉효(여·82세)>

이여도 사나 이여도 씨 이여도 사나

이 물에 이 사공아 저 물에 저 사공아
허리 땀에 화장화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싸
우리 배는 솔나무 배요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쳐라도 쳐라 이어싸나
읍내장에 향기나 가카 어여 나도 남들 즈쳐 걸어감져

<제보자 : 이진생(여 · 87세)>

② 해너가

우리느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너들
비창한 살림살이 세상이여라
추운날 더운날 비가 오는 그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이 되면 돌아와
그 날의 (청취불능) 저녁 밥 진다

<제보자 : 변성도(남 · 77세)>

(3) 잠역 노동요(축항쌓는 노래)

축항(방과제)에서 돌을 지어 나를 때 부르는 노래이다.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이 서서 긴 막대를 연결해 무거운 돌을 나르게 되는데 그 때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부르게 된다.

허헛 이영창
이여이여이여차
디여차 디여차 디여차 디여차 디여디여디여차
지영차 지어지어지어차
어허 놓고 놓고 놓고 ...

<제보자 : 김봉이(여 · 74세)>

3. 비기능요

1) 참민요

제주도에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무척 발달한 대신에 무용을 하거나 놀면서 부르는 유희요는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가의 옛 관창이 있었던 지역, 또는 포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음악적으로 노동요와는 색다른 노래들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성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조천을 중심으로 불려지던 노래가 남아 있고 이러한 성격을 띤 노래가 도내 전체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불려지는 노래들도 있다. 특히 '오돌또기'나, '이야흥', '너영나영' 등은 제주 전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다.

전승집단의 분포가 제한되어 있는 노래로서 대개 관에 속했던 관기들에 의해 불려졌고 유희적 성향이 강한 노래였음을 사설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 자체에서 생성했다기보다는 육지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관기들에 의해 불려지던 노래들은 일반인들에 의해 노동요로 변이되고 특권 계층의 노래가 일반화되었을 가능성도 추적해 볼 수 있다.

(1) 오돌또기

'오돌또기'는 어디에서 발생하여 전승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주도 전역에서 가장 유행된 제주 민요다. 강원도의 김매는 소리 '오독떼기'와 경기도의 '오돌독'과 같은 유사한 명칭은 있으나 가락을 일부 상통되는 듯하면서도 사실적인 면에서 별로 깊은 관계는 없는 실정이다.

'오돌또기'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주지역에서 자생하여 육지부로 들어갔다는 설, 혹은 육지부의 민요가 이입되었다는 설, 김복수의 전설에 따른 안남국의 음악이라는 설이 있으나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오늘날 '등그테당실'로 시작되는 후렴구는 완

전히 제주도 민요의 대표적인 소리가 되었다.

오들또기 저기야 저 춘향 나온다
달도 밝다 제가 머리로 갈까나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제가 머리로 갈까나
개야개야 겹으나 거점등 소개야
밤사람 보고소 함부로 주끄지 말아라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제가 머리로 갈까지

<제보자 : 임기선(여·65세)>

(2) 서우젯소리

‘서우젯소리’는 무의식에서 부른 놀이무가로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석살림’이라는 재차에서 춤과 함께 불려진다. 특히 선율이 유연하고, 경쾌하며 구성져서 민간에서 주술종교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민요화한 대표적인 예이다. 무가에서 신을 놀리기 위한 유희적인 성격을 띤 무가 본래의 모습을 지닌 것이 곡의 흥겨움으로 노동요화하거나, 놀이에 부르는 유희요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우젯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흥에 취해 들썩들썩 춤으로 화할 수 있다. 이는 곳에서 무당과 관중 사이의 일체감을 얻어 황활의 상태로 화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우젯소리’의 음악적 특징이 가장 민중들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뒸다 뒸다 금강산이 뒸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썰물은 나고보니 동해바다에 광신환이라

아~양 어~양 어~양 어~요
들물은 나고보니 서해와 당해에 광신환이라
아~양 어~양 어~양 어~요
이물에는 이 사공 놀면 고물에는 고 사공 논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떴다 뜬 돌 명지 바당에 실바람부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명지바당 실바람 부난 선도사공이 노님이여
아~양 어~양 어~양 어~요
해는 지고서 다 저문 날에 골목골목에 연기만 나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제보자 : 임기선(여 · 65세)>

아항~ 어~여~요
열다섯에 물질배왕 스물나난 상군퇴영
아항~ 어~여~요
흔착 손엔 비창죄고 흔착 손엔 테왁잡앙
아항~ 어~여~요
흔질 두질 요 물 속으로 들어가 간다 들어간다
아항~ 어~여~요
어머님 전에 술을 빌고 아바님 전에다 배를 빌영
아항~ 어~여~요
칠성님께 맹을 얻고 조상님께다 복을 받언
(잘못 곱아졌저)
아항~ 어~여~요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아항~ 어~여~요

허리띠 밑에 화장마야 물 때야 점점 늦어간다
아항~ 어~여~요
저 산천에 푸석새는 해년마다 푸릿푸릿
아항~ 어~여~요
우리 부모 한번 가난 영영 올 줄을 모르더라
아항~ 어~여~요
산방산 중허리는 중만도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산방산 꼭대기는 돌곡새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토끼축항 동바당에는 중국배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토끼축항에는 해녀들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군영 앞바당에는 해녀배달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마라도 저 산천에는 등댓불만 핀직핀직
아항~ 어~여~요
군영 앞바당에는 저 해녀들만 놀아간다

<제보자 : 김봉효(여·82세)>

(3) 창부가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잔을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먹자놀자 소주로구나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허리로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돌 속에 개수야 나무 밝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나내고 금도끼로 (칭취불능)

아~양 어~양 어~양 어~요
들물은 나고보니 서해와 당해에 광신환이라
아~양 어~양 어~양 어~요
이물에는 이 사공 놀면 고물에는 고 사공 논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뒀다 뜯 돌 명지 바당에 실바람부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명지바당 실바람 부난 선도사공이 노님이여
아~양 어~양 어~양 어~요
해는 지고서 다 저문 날에 골목골목에 연기만 나네
아~양 어~양 어~양 어~요

<제보자 : 임기선(여 · 65세)>

아항~ 어~여~요
열다섯에 물질배왕 스물나난 상군되영
아항~ 어~여~요
훈착 손엔 비창죄고 훈착 손엔 테왁잡앙
아항~ 어~여~요
훈질 두질 요 물 속으로 들어가 간다 들어간다
아항~ 어~여~요
어머님 전에 술을 빌고 아바님 전에다 배를 빌영
아항~ 어~여~요
칠성님께 맹을 얻고 조상님께다 복을 받언
(잘못 굴아졌지)
아항~ 어~여~요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아항~ 어~여~요

허리띠 밑에 화장마야 물 때야 점점 늦어간다

아항~ 어~여~요

저 산천에 푸섭새는 해년마다 푸릿푸릿

아항~ 어~여~요

우리 부모 한번 가난 영영 울 줄을 모르더라

아항~ 어~여~요

산방산 중허리는 중만도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산방산 꼭대기는 돌꼭새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토계축항 동바당에는 중국배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토계축항에는 해너들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군영 앞바당에는 해너배덜만 놀아간다

아항~ 어~여~요

마라도 저 산천에는 등댓불만 핀직핀직

아항~ 어~여~요

군영 앞바당에는 저 해너들만 놀아간다

<재보자 : 김봉효(여 · 82세)>

(3) 창부가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잔을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먹자놀자 소주로구나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허리로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돌 속에 개수야 나무 밝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나내고 금도끼로 (청취불능)

초가삼간 집을 지어 양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도나 살고나지고 천년만년도나 살고나지네
얼씨구나 좋다 아니노지는 못흐리라

<제보자 : 임기선(여 · 65세)>

(4) 양산도

에헤이요

경상도 물레방은 물은 (칭취불능) 돌고
우리여 귀동자는 나를 안아 돈다
세월 세월아 금아 금전아 왔다가지를 말아라
아깝다 요내 청춘 다 늙어간다

에헤이요

니 정 내 정이랑 모지락 배로 살짝 끌어다 한강수 철도에 놓고
없는 정이를 어찌 살았나 보자
앗아라 붙여라 때려라 모사라 아니 못노리로다
아깝다 요내 청춘 다 늙어간다

<제보자 : 송화숙(여 · 69세)>

(5) 너녕나녕

너녕나녕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나 밤이나(낮에낮에나 밤에밤
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촉에 우는 새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
워 운다

너녕나녕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나 밤이나(낮에낮에나 밤에밤
에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구요 사람은 늙으면 쓸모가 없네

너녕나녕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나 밤이나(낮에낮에나 밤에밤
에나) 참사랑이로구나

눈광 무사 뺩그렇게 하여노양 잠도 안 장 기영 나를 즈들럼
샤 똥이자랑 자랑
어서자라 나도 어디가주 기영 니만 뺩시민 살아지느냐 똥이자랑
착한 내 애기 자랑호주 어진둥이 자랑호주
느 우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 줌 못 장 욱 혼다 똥이자랑 자랑
똥이자랑
지집년이 신 줄 모르게 커사허주 동네 사람 먼 시끄럽텐 허
염져 똥이자랑 자랑 똥이자랑 자랑
이제사 줌 붙여 감구나 우리 애기 착한둥아 어진둥아 잘도잔다
혼저 자라 그만 하면 잠도 올만혼디 눈광 뺩그렇게 턴 무사
기영 눈에 줌이 으섬꾸나

<제보자 : 김봉호(여 · 82세)>

(2) 시집살이요

성님성님 스촌성님 시집살이 어뎨디가
아이고 애야 말도나 말라
고추당추 맵덴 현들 시집살이보다 더 맵다더나
장독닭은 시아방에 암퇘기튼 시어멍에
우렁기튼 시아지방에 코생이기튼 시누이에
매홍이기튼 시누이년에 물구렁기튼 서방님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허리라

<제보자 : 강정인(여 · 73세)>

- 조사자 : 김은영(95), 박주영(95), 강현숙(96), 김은희(96), 송효순(96),
허은정(96), 김은정(94), 강은실(98), 홍인선(98), 양재근(98),
김성만(98)

說 話

차 례

1. 고종달 이야기	11. 물통 이야기(2)
2. 산방산 이야기(1)	12. 봉애굿 이야기(1)
3. 산방산 이야기(2)	13. 봉애굿 이야기(2)
4. 산방산 이야기(3)	14. 아흔 아홉골 이야기
5. 당할망 이야기	15. 귀신 이야기
6. 일르당 이야기	16. 도깨비 이야기
7. 광정당 이야기(1)	17. 지명 이야기
8. 광정당 이야기(2)	18. 형제섬 이야기(1)
9. 개당 이야기	19. 형제섬 이야기(2)
10. 물통 이야기(1)	

<제보자>

제보자1 : 고석홍(남·90세) 제보자2 : 고창남(남·60세)·강춘산(여·60세)

제보자3 : 이연옥(여·76세) 제보자4 : 김용택(남·70세)

1. 고종달 이야기

서귀포 위에 올라가지고, 그 물살 그칠라고 하는데, 그 저 뭐인가, 그 소에 지우는 질피라고 잊지, 짐 실영 텅기는 질피를 지와가지고 부려서 밧을 가는데 그 아래 물을 놔뒀어. 행기 저 뭐인가, 저...저..., 늦

사발에, 낫사발을 행기라고 물을 놔두니까 그 고종달이가 물살을 다 그차가지고 오다가 거기 올라 보니 물살이 잇긴이서도 좇질 못하여, 어저서 좇지 못하나하면, 아 그 질되, 소 질되 아래 물을 놔두니까 물살이 거기 강 곱아 부러거든. 거기강 곱아부니 그때 거기를 못 좇아가 지고 거기 행기물이라고 하는 그 물이 컸다고 해.

<조사자 : 근데 행기라는 거는 어떤 거마썸?>

행기란 것이 사발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이며) 낫사발>

낫사발이 행기라고 옛날에

<조사자 : 낫사발이 행기지예>

행기라고…….

<조사자 : 낫사발에 담은 물이 행기물>

물에 가가지고 물살을 올려고 오니까 그것이 그 안에 곱아가지고, 거기 큰 물이 되었다 그거지, 개서 이리오라 가지고, 이제는 그 물은 못 찾으니 이 서쪽 드레 와볼질 못했거든. 물살을 찾지 못해서. 경해가 지고 용머리 오랑보난 용머리가 저렇게 나감시난 동쪽으로가 동쪽으로 하나, 두 개, 시개 (제보자 : 손가락을 꼽아센다) 쫄라부러지. 동쪽으로 시개 잘라 불고, 또 서쪽으로 서쪽으로 또 하나, 두 개, 시개 (제보자 : 손가락을 꼽아센다) 또 쫄라불고 경행 쫄라가지고 그 사람이 저 차귀, 차귀섬 가가지고 대국드레 가다가 그 바당에서 죽었다고해. 역사에.

<조사자 : 실제로 그 인물이 고종달이라는 사람이 이서난 거마썸?>
거 이서났주.

<조사자 : 그냥 옛날 얘기지예?>

용 옛날 얘기. 개서 우리 듣기론 물살을 잘라가지고 물살을 츠차가 서 쫄를라고 하니 이제 그 물살이 소 질되아래 이제 행기예다 낫사발에 물을 먹을라고 놔두니 물살이 거기강 곱아부러거든, 거기강 곱아부니 다 다 버쳐가지고 이 서쪽드레 물살을 좇지 못행 쫄르질 았으주.

<조사자 : 저기 아까 남쪽으로 토산리……. 막 얘기 해 주셨잖아예.

물 좋은 데랑 안 좋은 데랑, 거 다시 한번만 얘기 해 주십서.>

아. 남쪽으로? 남쪽으로는 이저 태흥리부터 태흥리, 또 저...저... 태흥리.....

<조사자 : 하천리>

하천리 아니고, 토산리 저 쪽

<조사자 : 신흥리, 시흥리 >

잊어부렀다. 그 넘어 토산, 토산 넘어 가마리, 가마리 넘어 표선, 표선 넘어 하천 하천 넘어 신산, 신산 넘어 온팽, 온팽 넘어.....

<조사자 : 신양리>

신양리

<조사자 : 그니까 그 쪽은 물이 좋은 쪽이지예?>

나빠나빠 (손을 내젓는다)

<조사자 : 아 남쪽은 물이 나쁘디고>

글로 저쪽 디리가면은 성산, 시흥, 종달 또 저쪽 디리가면은 어디나 저 별방, 옛날 별방 하든가? 이거 하도지?

<조사자 : 예 (고개를 끄덕인다) >

하도 넘어 서하, 아니고 저 쪽 디리 다 잊어부렀다.

<조사자 : 그 정도면 된 마썸. 근데 왜 그 쪽 물은, 남쪽 물은 나쁘고서쪽 서하 그쪽은 좋고 그렇게 돼 마썸>

서하물은 나쁘지게. 제일 물이 좋은 디가 어디나하면, 남원면부터 남원, 남원면, 위미, 또 효돈, 또 서귀포 이리오라 가지고 좋주게

<조사자 : 그니까 대정쪽하고 남원리 대정인가? 아니, 남원은 또 따로 있는 건가마썸?>

어. 남원면. 남원면.

<조사자 : 남원리 대정? 따로? 남원하고 대정하고 물이 좋은 거네예>

글로 갈라가지고 물이 글로부터 서쪽드래 좋고, 북쪽으로 가서 어디사 좋냐하면 잘 알테주. 조천, 조천으로 동 데렌 물이 나쁘다 이겨주. 물살이 그니까 동쪽드렌 물살이짜, 짜

<조사자 : 그러면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지않아 예. 남제주군이.(제보자 : 고개를 끄덕인다.)>

<조사자 : 그러면 그 동쪽이 대정하고 안덕 예.>

동쪽은 남원, 표선

<조사자 : 아~아 (조사자 : 고개를 끄덕인다) 남원, 표선 그리고 성산 예.>

그 쪽은 물이 안 좋고 이쪽, 서쪽에 대정하고 안덕은 물이 좋고 근데 그 남원물도 동쪽에 있는 물치곤 남원 물도 좋고 또 북쪽으로 가면 조천으로 갈라가지고 조천, 조천 동쪽, 조천 넘어 조천넘어 신흥인가…… 그땐 물이 나빠

<제보자1>

2. 산방산 이야기 (1)

<조사자 : 약수하고 관련된 이야기 잇수과?>

약수하고 관련된 이야긴 없고.

<조사자 : 무슨 물…, 물…>

물이 떨어지주게.

<조사자 : 그 물 약수 떨어지는게 그 약수가 산방덕 눈물이렌 해그네, 그거 먹으른 한 세모금 마시면 오래 산덴한 얘기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어서마썸>

어서.

<조사자 : 건 요즘 지어낸 이야기…>

중들 거기 살면서 손님들 많이 끌기 위해 …….

<조사자 :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이 아주 비가 많이 온 때에는 이거 일곱 방울이 떨어지거든

<조사자 : 아 아까 그 약 수 한번에 떨어지는게, 원래는 비가 안 올

때는 그만큼씩 안 떨어져 마썸.>

시 방울씩 떨어져.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없지. 옛날에는 거기 저 나무를 해가지고, 굿이라 고해서 긴 나무를 타가지고 물을 떨어지게 멘들었는디, 이제는 전부 세멘공구리해 부러서. 옛날엔 세멘 없는 때라. 나무 파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질게 놔서 (제보자 : 손을 앞으로 내민다) 물이 떨어져놔서, 중간에는 아주 고문대는 물이 안 떨어지주. 시방울, 가다 시방울씩 떨어지주. 시 방울씩 떨어지는디이 전에는 손님이 많이 텅기지 않다가 중간에 손님이 많이 텅겨가니까니 그 약수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이자 물 먹으면은.

<조사자 : 오래산다, 손님들을 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바가지 툇고 해서, 중간엔 물이 없었거든 물이 없으니까 여기도 이 물통이 쪽 물이 들어가지고, 물이 짜놔주게, 짠는디.

<조사자 : 식수 우리가 먹는 물도 마썸.>

응. 짜놔는디 그 물을 갖다가 산방산에 절간에 고여당 거기 질어 노앗주, 거저 손님들 오라가지구 약수가 있는데, 약수 없다없다 해가니까 그 물을 질어다 놓니까 손님들 먹어봐가지고 물이 짜네양 바당이 가차우니까 물이 짜지, 그렇게 해서 물 먹어난.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제보자1>

3. 산방산 이야기 (2)

<조사자 : 아! 할머니 저기에. 요번에 책 무슨 책인가에 보니깐 산방산에 가면서 물 떨어지는 물이 있잖아예. 그걸 먹으며는 대게 오래

산다는…….>

너넨 거기 안 판?

<조사자 : 봐가지고 아는 건데예. 거기서 물 똑똑 떨어지는데 지금 막 딱딱딱 많이 떨어지는데 예. 근데 걸 세 방울 이상 먹으면 무슨 무슨 보살님 눈물이랜 해가지고 먹으며는 장수한다고 하잖아예.>

보살님 눈물이 아니고 그게 옛날 옛날에. 어떤 억울한 시집 못 간 노처녀 처녀 눈물이다.

<조사자 : 예. (고개를 끄덕인다)>

너무 억울해 가지고 글로 가서 그냥 부처님과 같이 모신거라. 항상 10년 7물아도 그 눈물 이 떨어지고 100년 7물어도 대어박 수철도 그 눈물이 비가 많이 오면 똑똑 많이 떨어지고.

<조사자 : 처녀가 가가지고 거기서 울어마썸?>

죽었어. 죽었어.

<조사자 : 시집 못 간 처녀가마썸?>

그래서 그 처녀 눈물이라고 해서 그 굴 속에 너네 갖지? 물 떨어지지 안 헨?

<조사자 : 예 예. (고개를 끄덕인다)>

계난 처녀눈물이라고 해.

<조사자 : 무사 울었수과? 시집 못 강 울었덴.>

계난 너도 시집 못 가른 울주게.

그건 느 말년이 느 평생에 잇는거라. 그거 그래서 저 만날 빌고 지나가는 관광객도 빌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빌고.

<조사자 : 아! 근데 할머니 그게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멀쩡한데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거난 그런 것이라.

<조사자 : 그래서 이걸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그냥 떠도는거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잇어났수과?>

옛날 수백년부터 그런 말이 잇어.

<조사자 : 아! 잊어났수과?>

옛날에 그 부처님도 안 모시고 아무것도 안 모실때부터 물이 떨어지니까 이상하다 해서 글로 가서 부처님도 모시고 글로 가서 큰 기도도 드리고.

<조사자 :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떨어지는 물 세네 방울 마시면 오래 산덴 헨 말도 다 있었던 말이우다예.

제보자 : 그건 뭐 수만년 전 유전 칠꺼 그거.>

<조사자 : 그건 새로 생긴 말이고?>

새로 생긴 말 아니. 옛날부터 그런 거.

<조사자 : 오래 산덴 헨 말도 옛날부터?>

응. 옛날부터 있는 거.

<조사자 : 관광객들 막 와그닝 사람 귀 솔깃하랭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서난 거구나예.>

옛날부터 있는거야. 그리 저 이런 바가지도 많이 만들어놔서 그거 먹으면 진짜 장수하고 병도 없는 건데 그걸 잘 알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일러바쳐라.

<제보자3>

4. 산방산 이야기 (3)

<조사자 : 산방산 있잖아예. 산방산에 그 물 있잖아요. 물 마시는 약수 세 방울 먹으면 세 방울씩 떨어진다고 했나? 거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잖아예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얘기나 좀 해줍서.>

이제 그 관광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국가발전에 따라가지고 그 것이 들어오니까 그 스님들이나 관광목적으로 이 세 방울이니 네 방울이니 하니.....

<조사자 : 만들어낸 얘기?>

예.

<조사자 : 산방덕 눈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요. 아니죠. 조언이지요.

<조사자 : 지어낸 거마써?>

예. 조언이지요.그기 비가 하영오면은 쪽쪽쪽쪽 많이 오고 또 비가 가물아가치고 많이 올 적에는 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압니까? 예. 가물면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그건 문짜기 사람이란 것은 당신들 입혀 가지고 양심적으로 이올 지역을 분명히 굴아 붙어야만 다른 것을 대조할 사람이 있거든요.

아! 용택이는 이렇게 골아신디 왜 당신은 이거나 하멘은 거시 중인이 나오게 되었어요.

<조사자 : 그리고 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다라고 하시는분 계시거든요.>

아! 건 못 써.

<조사자 : 우리가 저 책자 지어낸 거에는 산방덕이 뭐…….>

아! 산방덕의 눈물이라고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조사자 : 근데 어떤 할머니는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억울해서…….>

아! 아뇨. 거 당초 그렇게 해서는 그 아줌마도 나도 70세요. 내 연령이 꼭 70세래요. 70센디 내가 이런 글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우리 부락에 당신네 선택해서 찾아온 것만도 고마운데, 나는 부모 조상한테나 지역 어른한테 들은 말 그대로 내가 발표해 드린 겁니다.

<제보자4>

5. 당할망 이야기

이제 할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물당할망 또, 일르당할망, 그 두 할망인디. 그 큰물당 할망이 처음에 아을 가져가지고 홀어멍인데, 아을

가져가지고 일러당할망을 가져서 했ندی. 웨야지 고기가 그리워서.

(조사자 고개를 끄덕인다)

웨야지 고기를 하도 그리우니까니 산방산에 올라가지고 돛을 동쪽으로 터러줘서 돛진골이라는 흠이이서, 돛진골이라고, 흠이 이셨는데. 그때난 말이거든 돛 떨어져가지고 돛진골이라고 그 할망이 떨어져와두고, 저 동쪽으로왕 내려서 거기 오라가지고 이 돛술내다뻥 내다부쳐부난 다시 먹을 생각이 없어 돼야지 고기를, 경해서 산방산 이쪽으로 오면 저...저...휴게실 있지.

(조사자 고개를 끄덕인다)

그 동산 동쪽 엔뒤라고 그것이 엔날에는 엔뒤라고 한디라, 그 동산이가.

(조사자 고개를 끄덕인다)

거기서 오랑 앉자 가지고, 그 큰물은 보니 그 큰물통이 전부 그 때는 저...저... 전부 소당낭 나모만 나가지고 골대나 하고 낭만나서 재각했거든.

<조사자 :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논이신디가예.>

논 잇는 디가 경하니까 그 할망이 오라가지고 배려보니 논을 만들어시민 좋을디다. 물을 내리니까 경헤가지고 그 때 할망이 오라가지고 이제는 그 동네 청년들 보고 저 웨야지를 털어져와시니까니 가서 잡아다 먹고 일을 며칠씩 해 달라고 경헤가지고 그 때 논을 멘드ندی 열두판 멘들어서, 논이 열두 개.

(조사자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남에 꾸러 열두섬을 멘들었지. 이제 멘들어 노니 이제 방작해가지고 갈라도 먹다가 남거든 이제 부자가 되어가지고 경헤가지고 내중에는 그 할망이 이제는 그 논 좃지 못하고 하니까 대정골 엔날에 관가가이서 관가가, 관가가 사ندی 그기 가서 논을 바쳐서 논을 열두판이를. 관답, 관답 하거든.

(조사자 고개를 끄덕인다)

관가에 바쳤으니까. 그래서 관가에 바치니 관가에서 하는 말이 정월 대보름하고, 팔월 보름 제의를 쳐주라. 할망이 죽은 후에라도 논에서 나는 곡식을 이제 얼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가에서 나룩은 더러 갈라가고 하다가 왜정 때 되니까 그 별던 사람이 다 팔아먹어 버렸주.

<조사자 : 왜정 때>

왜정 때 되니까 이제는 임자가 엇엇거든. 관가도 그냥 법이 바뀌져 버리니까. 그때 별던 사람들이 다 팔아먹어버렸주. 이제도 판답이라고 하주게.

<조사자 : 할아버지 엔뒤동산 마썸>

어 엔뒤동산.

<조사자 : 엔뒤동산>

엔날에 불싸난디라, 봉화.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봉화. 그래서 엔디,엔디 하지 아니여.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제보자1>

6. 일르당 이야기

<조사자 : 조왕신이나 그런 것 같은거>

일르당이라고 있지.

<조사자 : 일르당마썸. 그게 어떤?>

칠일, 칠일되면 이제 거가.

<조사자 : 칠일요. 아~아>

일리. 칠일.

<조사자 : 왜 칠일날?>

칠일날 가가지고, 아들도 좋게 해주십서 하고.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재수 좋게 할려고.>

일르당이라고.

<제보자1>

7. 광정당 이야기 (1)

<조사자 : 여기 광정당인가 하는 당이 있어 마썸. 광정당?>

광정당 그거 역사 알젠?

<조사자 : 예.>

그거 굴은 말, 무신 광정당?

<조사자 : 그거 아는 내용만 얘기해 줘서.>

그거 어제영 그지께영 저디 사는 할아방이 막 골아신디.

<조사자 : 그거 나가 어떻 해보카 계른? 다 조용협서양.>

광정당에 왜 영가 목사님이 육지서 와선 당오백 절오백을 부수라고 하
니깐 보통 사람은 못 부순거라. 그니까 이게 광정당에서는 물을 한 마리
탕으냉 썩 넘어갈려하면 그 때는 물이 탁 다리를 부수와 못 넘어가게.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거기 가른 영 내려서른 절대 내리지 않으른 다리를 부수와불주게.
영창 목사님이 와서 한번 내가 해보켄 해 가지고 지나 가니까 거기 가
니까 내리십서 내리십서 하인이 하니까 들은 사람. 아, 그냥 잇더라구.
그러니깐 그레 탁 가니깐 물의 다리가 딱 부러졌어.(손을 내젓는다) 부
러지니깐 하 이건 안되겠다. 그러른 영창 목사 흐는 말썸이 이 물은
여기 다 놔라고 놔서 이 신안를 나와서 이물을 다 잡수계끔 시쿠들하
라고. 응? 알아들어?

<조사자 : 예. (고개를 끄덕인다)>

경행 신방 멧을 해당 곳을 헛거든. 곳을 허니깐 이 놈이 이만큼 이만

큼 나와서(손을 내젓는다) 그 구랭이가 나오니깐 이제는 곳 막 해노코
이제랑 이 물을 다 잡수시고 곳을 하라고 그러니깐 돈 이만이 나와서
그걸 다 먹어서 절반밖에 안남겼어. 그래 목사님이 큰 장검이 큰겨.

<조사자 : 할머니 절반밖에 안 남졌다고 마씨?>

응 다 못 먹언. 썩은 꿀랭이 하나만 영 냉겨노니까 탁(손을 내리짚
는다) 찍으니까 말도 반짜나고 그것이 딱 쫄라졌거든.

<조사자 : 그것이 뭐우까?>

구랭이 당 구랭이. 응 계니깐 그것이 없어부니깐 요즘 사람들이 글
로 지나가길 그것을 그냥 놔둬서 우리가 매일 지나감도 절하고 넘어
갈껀디 그것이 없어부니깐.

<조사자 : 편안하게.(고개를 끄덕인다)>

응. 게 목사님은 이제 저디 세에 가서 어디 요새 같은데 여관 같은
디 가서 주무셨더니 꿈에 태풍이 쳐가지고 실풍이 쳐서 꿈에 너는 봤
어 너의 집으로 가야지 응. 안 가른 너의 아들은 다 죽게 만들어 곧
넘어가라고 퍼딱 깨니깐 꿈이니깐. 벌써 어떻게 갔는지 몰라도 그냥
병해서 어떻게 가보니깐 아들 둘이 죽어 부렸어. 그 죄로.

<조사자 : 아! (고개를 끄덕인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서울서 죽어부니깐, 예라 못쓰겠다 예라 이놈의 아들
하나를 뇌냥으로 죽연대문지방에라 하니깐 아 그것은 말라구 그것은
장명하니까 장손이거든 안 된다고 그래서 역사가 있어. 그러니깐 목사
님, 사모님은 매일 울고이시니깐.(일어나서) 으호호 내 아들을 어찌 들
을 죽였느냐 하여 우리 영감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해 죽였느냐 매일
울어가니깐 목사님은 무슨 말 하니깐 저 세멘기이레 가져오라고. 나도
억울해졌다고 목사님, 사모님은 매날 눈물이 나지만은 목사님은 눈물
끝막끝막 그냥 피가 뚝뚝 떨어졌댄. 진작 그걸 여기 왕 죄 받아가지고
아들 둘이 죽으니까 피가 안 날겨여. 그거밖엔 역사가 없어. 나도 들은
말인디 그거와 다른 거 스스한 당은 이…….

<제보자3>

8. 광정당 이야기 (2)

<조사자 : 여기 당 무슨 당 이서마씨? 일렛당 있고, 광정당 있고, 개당인가? 일렛당에 무슨 일렛당 할망하고 큰당 할망인가?>

예. 거 있지요.

<조사자 : 거 무슨 얘기마씨?>

아! 당이라 것이 이 큰 당이라면은 토지도 당입니다. 큰 당.

<조사자 : 여기 당이 모두 몇 개 있는거마씨? 사계리에.>

사계리 큰 당 있고 일렛당 있고. 저.

<조사자 : 개당.>

개당은 저 개포에 저 개마디 있는 거

<조사자 : 광정당.>

광정당은 저 쪽에 있어요. 광정당이란 것이 당은 큰 당입니다. 그 광정당이란 것이 어째서 크느냐 하면은 영천 이 목사가 아! 제주도지 목사로 이 부임허야 가지고예. 아! 무총 총에 벌초 안 해는 총을 죄다 벌초 허라고 하고 당은 총이란 것은…….

<조사자 : 무덤?>

무덤에 벌초 아니하는 것을 총이라 하지요. 옳지.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 거 아주 썩가셔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손이 있어도 벌초 안 해는 총 되거든요. 겐디 무지 총, 영천 이 목사가 무지총을 청소하고 당이랑 다 때려부시라 했어요. 게서 영천이 목사가 그걸 명령 내리고 이제는 순력을 들았어요. 순력이라면 오새 대통령이나 군수나 그 순해(?). 순력을 도는지 광정당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광정당을 지내게 되는데 그디 옛날 순력하게 되므는 그 옛날 하마 우리 요새 같으면 비서들 종이 있지 않으파게. 아! 여기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 여기 당에 큰 신안이 있으니까 아! 잘못 지나가면은 피해를 당할 겁니다. 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 그냥 몰아 보라고 말이야. 아! 경행 딱 행모니까 몰이 그만 절단 말입니다. 아 그 목사 탄 몰이 절여. 그냥 갈

수가 없단 말야. 그른 실화지 설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듣기로는 전설에 비중 우리 사계리 전설입니다. 아! 게른 이젠 필연적으로 무슨 신안이 있는 곳이 아닐 것이냐 해가지고.

<조사자 : 신안요?>

신안. 지금말로 구신이 있단 말이지요. 구신이 있다 해가지고 게른 좋다 말이며. 신방이면 요새 무당입니다. 신방은 다 알지? 우리 제주도 사람이니까……. 무당을 딱 모여가지고, 신안을 청을 내란 말이야. 막 굿을 해가지고 이젠 등당 그래가지고 굿을 허연 헨디 물을 잡으라고. 게난 이 물을 탄 가지 못 할 꺼난 게 게 물을 이제 탕갈 수가 없주게. 다리 전 물 이제 탕 갈 수가 없주게. 물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먹읍서 흐랜.

<조사자 : 귀신한테?>

귀신한테 물을 괴기를 먹읍서 흐랜. 아맹행 귀신이 먹고싶으니까 이 물을 절로 놔시니까 이거 먹읍생 허라. 막 빌영해니까 그걸 먹어났단 말이야. 이제는 들어갑서 하나까 배가 불러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조사자 : 귀신이 머 마씨?>

거. 뱀이주게. 배엠. 구렁이.

<조사자 : 구렁이 아니?>

웁지. 웁지. 잘 알았꾸나. 구렁이 그 놈 뱀이 배불르게 되가지고선 괜히 그 때는 사람들을 골, 대정골 사람들을 참여케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장작을 가져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때 그 뱀을 솔아가지고 그 때 구렁이 두 마리 날앗단 말입니다. 암뽕이 두마니 날앗다 허여.

<조사자 : 언제? 그 뱀이?>

머. 그 뱀이 탄 다음에 꿩이 두 마리. 그 구신이 신안이지. 지금말로 하면…….

<조사자 : 뱀이 죽엇단 말이지예?>

웁지. 웁지!

<조사자 : 귀신 다음에 꿩이?>

어. 뱀이 막 사라지니까 꿩이 날았다하여 이걸 신화입니다. 그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자 : 그 목사님이 아들을 둘 잃었다는 얘긴 어서 마씨?>

아니, 있지요. 겐디 영천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환도하게 되었어요. 고향에 목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니 조선 별도에서 조천면에서 뱉기는 그 때는 그 별도 출입이 조천하고 이 목손관밖에는 못하게 되었어요. 어 별도 조천에서는 고향을 가게 되가지고 딱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쭉욱 하게 바다를 떼어놓니까 태풍이 이만저만 불지 않는단말입니다. 게면 태풍 부는 것은 당구신이고 태풍은 당구시이고 또 총구신은 우리 영천 목사를 모셨단말이여.

<조사자 : 총구신이 뭐파?>

아까 곧지안해서게. 그 별초 안해그뻥 요새 이제 있는 것이 총이라고 합니다. 무덤총이래요. 그건 무덤총입니다. 예. 거 잘들 압씨. 그래서 그 총구신은 깨끗이 청소해주니 총구신은 아 영천목사를 모시게된 단 말이야. 이러면 시웃시웃하게 바람은 불대 아니 총구신이 꿈쩍을 못하게 되어. 게서 조천 별도에서 딱 이제 나감과 동시에 이제는 목포에 도달해 나갔단 말이야. 도달되어서 보니 영천 아니라 전북 영천인데 딱 들어가지고 이제는 문무에 들어가니 아들이 삼형제랴어요. 어. 아들이 삼형제라는데 거기 어디요. 게난 제주목사로 목으로 올라가지고 부임하여서 들어가니까 반가해가지고 나오라 해서 기뻐을 이제는 나 그거 온다고 해쓰는 사전에 연락이 될꺼 아닙니까? 연락이 되어가지고 주안상들을 그래여 가지고 주안상을 모든 걸 가져온디 어 딱 허는디 그건 마 예컨대는 신환지 실환지는 모르대 아 아들 두 형제를 잡았어요. 두형제가 앞에서 죽어…….

<조사자 : 바로 앞에서?>

영천 목사앞에서 딱 두 아들이 죽었거든.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거 뭐 기 뵙하고 주안상을 갖고 술만 먹는다 할망은 아 이 영감

아들 형제가 다 죽어도 어찌서 당신은 서글픈 생각도 아니 갖고 이렇게 합니까 하니 이제 물어보니까 효과없소. 당신 무엇을 내가 하겠소? 괜히 대야 가져오라고 대야 가져와 피 쏟으니까 피가 한 대야가 되었던 말이야. 음 그 전설이지. 그 영천 목사가 할망네는 들어 물어봤자 가슴타지를 앓으거든. 우는 사람은 가슴이 타질 않습니다. 물어볼면은 중헌 사람은 딱 토하니까 대야에 피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말썽 들만 살았어.

<조사자 : 아! 장손이 아니라?>

아니.

<조사자 : 장손이라고 해서 살려두고?>

아니지요. 건 우리가 듣기로는 우로 큰 아들 셋아들 죽고 말썽 아들만 살렸어.

<조사자 : 막내가 살안마씨?>

옳지요. 막내가 살았어. 아주 이건 끝끝내 내가 들은 말. 요새 혹 당신내들이 어떤데 가그냥 이 논설을 들젠해도 아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시르느 백 다섯이래요. 게고 또 우리 아버지네가 이 향교가 뭐든 것이 유래를 전통을 자랑했거든. 다섯 여섯 살때부터 아버지 품에 자랐지 어머니 품에 안 자랐거든.

<제보자4>

9. 개당 이야기

<조사자 : 개당은 뭐우꽈?>

저기 저 부두에 개당이 하나 있다. 갠 당을 다 부수라 했거든. 어떤 순경이 주둔 순경이 여기 하나 있었어. 여기 처가 들고이 저가가 뭘지 알아? 장가 들어서 여기 말로이.

<조사자 : 아! 장가들어.>

이젠 당은 부수라 하니깐 보통 사람은 못 부수니까 순경이 하나 부수았어. 그것은 부수부니까 그 죄로 그 사람이 눈을 한쪽 잃었어. 그런 역사밖에 다른 건 어서. 나 두가지 약간 말했거든.

<조사자 : 굉장당하고 개당하고.>

그것뿐이 어서.

<조사자 : 당 두 개밖에 어서마썸?>

당 두밭되 이서도 그대로 꾸준히 댕겨.

<제보자3>

10. 물통 이야기 (1)

물통관계나…….

<조사자 : 물통, 사계리하고 물통하고 마썸.>

사계리 큰물이라고 물통이 여러 개주제.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큰물이 뭐하는거 마썸. 물 대주는거.>

거짓 물이 옷물통하고, 양개물하고, 또 당물하고, 큰 물하고, 알정물하고, 넘나물하고, 고개물 하고 그렇게 돼. 물 나는데가 이래 빠지는디가 물통이 그렇게 돼. 빠지주 요기로.

<조사자 : 여기가 어딘데 마썸.>

사계리.

<조사자 : 사계리 앞 바다요.>

저 내 노는디 봤지 글로 빠지지(팔을 뻗쳐 손짓한다)

<조사자 : 여기 정확한 내가 이름이 뭐 마썸?>

어느거?

<조사자 : 요 사계 앞에물 흐르는데.>

저쪽엔 큰물과.

<조사자 : 큰물꽈.>

내가 빠지니까 동쪽 서쪽이 되는 거주게. 내 동쪽 내 서쪽. 이긴 서쪽이고 저쪽은 동쪽이고.

<제보자1>

11. 물통 이야기 (2)

<조사자 : 할아버지. 근데 여기 물통 있잖아예. 물통.>

예.

<조사자 : 물통. 뭐. 옷물통. 물통 뭐뭐 있수과?>

아! 거 적읍씨게. 아! 우리 마을에 제일 으뜸가는 물이 요새는 뭐하지마는 큰 물.

<조사자 : 예.>

적읍씨. 큰 물. 그 다음에는 봉애굿.

<조사자 : 그게 물통 이름마씨?>

예. 경만 적읍씨게 봉애굿. 그 다음에는 화상뭇. 옹지 화상뭇. 그 다음은 아물통.

<조사자 : 아아. 바로 여기…….>

음. 이 아피여. 아물통뭇. 그 다음은 우턱곳.

<조사자 : 우턱곳?>

아맹해도 한글로는 다 쓰게 되었어. 우턱곳이래 씩씨. 그 다음은 우턱곳. 알정물 있어.

<조사자 : 알정물.>

음. 알정물. 아! 알정물이 있고(한참을 생각한 후) 아아! 양계물.

<조사자 : 양여물 마씨?>

양계물.

<조사자 : 이거 전무 사계리에 있는 거 마씨?>

음. 다 사계리에 옛날 다 그 물 먹언 살았주. 거 동네동네마다 물이
이섯주. 음.

<조사자 : 그럼 혹시 이 물통에 관한 얘기 같은 거에서 따서?>
아.

<조사자 : 어느 물통 물이 좋고 왜 그 물통 물이 좋은지.>

개난예. 물통 물이 큰 물이 우리 마을에선 아주 그게 옛날 요새 같
으면 정확하 잘되었다는 물입지요. 개민 우리 마을 전체가 아 요새 인
구는 안되지마는 마— 한 200 이상, 아 그 된 호수, 저수지나 되민 큰
물을 지러다그네 이 제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큰 물을 지러다…….

<제보자4>

12. 봉애굿 이야기 (1)

<조사자 : 예. 여기 물통 많이 있잖아예.>

응?

<조사자 : 물통.>

무슨 물통?

<조사자 : 앞물통인가? 알정물, 당물, 큰 물, 아물통 그런 얘기.>

아물통 이랜 현 건 요디 요기 요기 요요 그 이상한 그것이 아 물통
이란 동네고.

<조사자 : 아니, 물통이 많잖아예. 여기가.>

동네는 아니고 요기는 옛날 말로이 봉애굿이란 요기 요(손으로 가리
킨다) 저 공장밑에 있고(잠시 잡음으로 인해 중단됨) 비가 많이 오민
씩 흘러내리고 비 아니오른 싹 들어가. 이 안이만 물 있는거라. 그런거
그 봉애굿이라고 옛날 어떻게 저 안해크라.

<조사자 : 봉애굿이요?>

붕애굿?

<조사자 : 그게 머마씨?>

요디 물, 붕애굿. 그거 큰 물이 아니까닌 저 산방 앞드르까지 지나보 디보민 물도 크지 않으면서 큰 물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 거야. 그 다른딘 산물 내리는 거 업주게. 사계리 마을은 너러도 진짜 물은 나빠. 아닌게 아니라 화순 있는데 가른 물 많이 있는데 물이 제일 좋은 디. 사계린 물이 나빠.

<조사자 : 할머니 이 아까 저쪽 동네는 가보니까 무사 아물통 동네랜 허든데. 여기 무슨 동네마썸?>

이 동네 송죽부락이 안 동네고, 요로 요기 요디.

<제보자3>

13. 붕애굿 이야기 (2)

<조사자 : 딴 마을들에 보면예 뭐 어떤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 애기가 힘이 되게 세가지고 힘이 되게 세고 딴 애기보다 훨씬 많이 커가지고 막 그런 애기 있잖아여. 사계리 에 그런 애기.>

무신리?

<조사자 : 그니까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가 힘이 세가지고 아기 장수……. 애기가 날개를 달고 나왔다거나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뭐 일을 더 많이 하거나 뭐 그런 애기 어서마썸?>

음. 그건 장수비기리인디. 옛날 그 장수비기리인디. 그건 사계 없어요. 장수비기리 그것은 우리가 육지서 어떤 대집 안에서 그 어깨에 놀개 다니꼬 장수비기리 해서 그거 말들했지. 사계에서는 없어요. 예 그건 뭐 서적에도 없어요.

<조사자 : 무사 붕애굿이랜 헨마씨? 붕애굿.>

아. 붕애굿. 아 그게 아마 그게 붕어굿이란 것이 그 속칭을 어떻게해

서 매어났는지 그게 이 붕어가 물에만 잘 산단 말입니다. 이게 붕어. 붕어. 그 물 터지민 붕어가 나와.

<조사자 : 아! 그 여기서는 그 붕어를 붕해랜 하는 모양이다예.>

아니우다. 그 저 붕어란 것은 이 육지는 민물고기를 무신거 은어. 은어라고 하고 우리 나도 육지에서 군대생활하면서 많이 그런 거 옛들었거나 상델했지마는 붕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자 : 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붕어를 붕해랜 하는 거 마씨? 사계 사투리가 붕어를 붕해랜 해마썸?>

아니. 우린 붕어주게. 그 사투리건 말건게.

<제보자4>

14. 아흔 아홉골 이야기

<조사자 : 그리고 산방산에 보니까 아흔 아홉골이라는 얘기도 얼핏 들어 신디예 어떻게된거마씨? 한라산 얘기 아니파?>

한라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라산이 또 영산이고 한라산이 그저기 저 화산입쥬. 그 백록담이라는 것이 그냥 파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듣기로는 한라산 그 저 화산에서 튀면서 산방산이 오란 단 말입니다. 우린 전설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 우리 내가 곧 들은 서적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거 더듬기가 곤욕스럽지만은 그렇게 오라가지고 한라산이 그 아흔아홉골이라는 것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겁니다.

<조사자 : 산방산은?>

산방산도 아흔아홉골이 있지요.

<조사자 : 어. 어떻게 아흔아홉골? 산방골이 아흔아홉골이라는 얘기 같은 거 이서마씨?>

있다고 해도 그 골을 우리가 큰 골만 알지 산세가 험악하면은 아흔

아홉개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지요. 건 반드시 있습니다. 육지와 육지는 아흔아홉골이니 이제 뭐 한라산이니 산방산이라 말 안 해도 그 야수들이 하는디 제주도는 그 절도가 되다보니까 아 이런 그 아흔아홉골이 안 되서 육지와 연결 아니됐다는 겁니다. 육지와 연결된다면 맹수도 살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달라지지요.

<재보자4>

15. 귀신 이야기

<조사자 : 할아버님 저기 상가집 같은데 가면 어떤 얘기 하셔마씨? 귀신 얘기 많이 하겠다예? 아무래도 상가집이니까…….>

아! 귀신.

<조사자 : 귀신도 사람 해 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귀신이 있잖아예?>
거시기 귀신에 대해서는 무얼 물어봅니까?

<조사자 : 그냥 얘기. 할아버지 상가집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어떤 얘기 하셔마씨?>

귀신은 정신.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조사자 : 그런 거 말고예. 귀신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그게 뭐지? 흘러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게난 이 구신이라는 것은 제가 켈 먼저 말한 것은 이 마음이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구신이 따로 없습니다.

<조사자 : 할아버님 평상시에 사투리 안 쓰시는 모양이다예.>

쓰지 뭐. 거(허허웃으면서). 거난예 사투리 썼던 말았던 나는 이 언제나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컨대는 구신에 흘러 구신에 흘러 그 미쳐그냥 일도 있고 이제 또 덕수 가면은 덕수는이 불되하여난 구신이 있주게 불되라는 그 귀신이니까 그디가그냥 술을 하여 영 먹으면은 용머리 같은데 끄서 다그냥 드므러 버리는 수가 이서. 어.

그것 흘러가버리는 거주게. 그것이 증말이면 구신이라고 하는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동촌에 가보면은 먼 표선더러 가면은 그것은 이 낭 구신들이 뱀구신이 하가지고 그디가그넝 이저 술 먹을 때랑 뺑 먹지 호꿈이라도 키우리지 안항 먹었당은 이진 뭐 당장 뭐 척 합니다. 척해가지고 흘러부려 그것은 그 먹는 사람과 그냥 덕이져. 덕수가서도 원래 건심한 지방 큰 지방 사람은 술을 주면서도 먹는 사람은 술이 어라 쉽지요. 어루운 때문에 그냥 멀쩡하거 든 미리 약간 비와뒤 그넝 술을 주던가 이렇게 해야만 큰 행사를 치를 때에도 편안하지 쟁안해믄 도깨비에 미쳐 붙주게. 경 미쳐브렁 막 저 바닷가에도 막 가그넝 등글고 허매.

<조사자 : 할아버지는 그럼 사계리에서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 애긴 안 들언마씨?>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 고인되었지요. 옛날이 나이가 많아노니까 그런 흘러난 구신한테 흘러난 할아범들이 있주게. 요새는 총부리 팡팡해노니까 구신이 범람하지 못해지요. 돈도 구신 낭도 구신 알았습니까? 이 경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 오늘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요새 문양으로 예수님이 나 이제 불교나 유교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발달되지 못해서 이런 때문에 그자 어떻든지 쫓 무도가 나는 생각하기를 제일 우리나라에 그 이런 미개한 제주 육지도 그랬지요. 육지도 촌락에는 다 그 낭을 뭐 돌아 매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삼아서 민주주의나 조선들 이제 그 일화를 많이 했지요.

<제보자4>

16. 도깨비 이야기

<조사자 : 애기 없어요?>

도깨비게. 아이구 도깨비 낫저게. 무섭게시리.

<조사자 : 도깨비가 나타나서 나쁜짓을 했다, 아니면 사람을 도와줬

다는 얘기.>

사람 도와주는건 엇지.

<조사자 : 그럼 나쁜짓한 얘기 있어요?>

엔날에 도깨비가 나면, 사람을 흘려다가, 저 높은 동산에 강 터러치와불면, 혼낭 깨낭보면, 이거 도체비 미쳐졌구나하명 집이 돌아오는 수도 있고.

<조사자 : 아~아(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보다 자세하게.>

저 보통은 저 쪽으로(팔을 뻗쳐 손짓한다)

<조사자 : 저 쪽 어디요?>

바군지모름. 바군지모름. 바군지모름데레 도체비가 나면은 사람이 그 흘려다가 그 이제 잘 끄서가불고, 또 저 전진농곽이엿 해주게.(팔을 뻗쳐 손짓한다)

<조사자 : 전진농곽요?>

응. 전진농곽에도 물통이 있주게 그런 물통에강.

<조사자 : 어떤 물통이예요?>

우물. 우물통이신디가 드리쳐불고, 사람이 겁나가지고.

<조사자 :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어디 가오다가 사람이 흘려불문 그런데 잘가. 당산 있는 데로 잘가. 도체비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꼭 사람 같아. 사람 같은디, 엔날 그 저 모자 이제 밀모자 있지. 이런 햇빌 나는데 쓰는 모자 그런거라도 흘솔 짚모자처럼 한 모자이 도깨비는 쓰주게, 그런 모자 쓰면은. 아! 저거 도깨비구나. 도깨비다. 모자로 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쪼끔 명심안해 그네 정신잃었다하면 도깨비가 흘려다가 어떤 물통 같은데, 이런 높은 동산 같은 디 흘려가지구 쪽하게 떨어져 가지고 무서와가지고 깨낭보면은 아 내가 도깨비 미청 여기와졌구나. 겁나가지구 그때는 집이 달아오는 거.

<제보자2>

17. 지명 이야기(거문질→사계리. 토끼동→용해동)

거문질이라고 해놔주.

<조사자 : 거문질. 거문질 왜 근데 거문질에서 사계리로 바뀌었 마썸.>
경해가지고 그 이름을 고쳐서 사계리라고 모래가 여기 많해놔주게.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모래 사(沙)자에 시내 계(溪) 그래서 사계리라고.

<조사자 : 처음엔 거문질이었는데 사계리랜 바꿨잖아예. 이거에 관련 된 사계리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거문질하고 관련된 이야기 어서 마썸.>

옛날에 검은질이랜 했다가 사계리랜 고쳤주. 일명 제주도엔 다 고쳤주. 한 1800년대 그때 쯤. 이 모슬포도 저 이제……. 이명들 다 바꾸지 않해서 제주도 쪽하게 돌아다니명 다 바뀌서.

<조사자 : 그럼 지명에 관한 옛날이야기도 별로 없는 셈이구나예. 그냥 바꿨다라는 정도만 있고. 여기가 북쪽이지예?>

아니 남쪽이지. 저 북쪽에서 내려왔지.

<조사자 : 예 바다쪽으로 내려올수록 모래가 많고 하니까 모래 사(沙)자에다가 시내 계(溪)자를 붙여서 사계리라고 했다.>

산간부락에 이서난거주 이 사계(沙溪)리가, 저 산간부락에 이실때 거문질이라고 했다가 또 여기 내려와 가지고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계리라고 지은거지. 전부 베늘이여서 베늘.

<조사자 : 베늘요?>

모래.

<조사자 : 아~아 (고개를 끄덕인다) 모래사장.>

베늘 되었다가 여기 사람이 살면서 다 동네가 되엇주. 그때는 여기 토끼라고 해서. 토끼동이라고 해서. 이제는 용해동이라고 해. 모래를 봤는데 흙이 나와서 토끼동이라고.

<제보자 1>

18. 형제섬 이야기 (1)

<조사자 : 저기 형제섬 있잖아예. 그 얘기 형제섬에 관한 얘기 어서 마썸?>

형제섬에 관한 얘기. 거기가든 섬이 몇 갠줄 알아?

<조사자 : 두 개.>

세 개여 세 개.

<조사자 : 어? 두개 아니파?>

세개라.

<조사자 : 형제 섬 두 개라고.>

삼성제.

<조사자 : 아! 삼형젠가?>

그니까 형제섬. 형제섬.

<조사자 : 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구나예.>

거기 가 봐야지. 너네 다 확실히 알라면 가봐야지.

<조사자 : 음음. 옛날애긴 참 많을 것 같애예?>

많아봐야 그거 선생님헌티 일러바치든 뭐하느니? 그거 그런거 없애 부러야지.

<조사자 : 무슨 없……. 이런 것이 알아놔되야 좋음미께? 나중에도 이 동네 이런 얘기도 이섯꾸나하명.>

음. 역사를 그거 뒤두면 좋주마는 그계 철저히 아는 사람이 있다.

<조사자 : 저 형제섬 어떻 삼형제마썸? 형제 그>

형제섬?

<조사자 : 예.>

성제섬을 꼭 알고 싶으냐? 너는?

<조사자 : 예. 알고 싶어마썸.>

옛날 할아버지 말씀이 형제도는 삼형제가 아버지나 어머니 죽으면 상제기라는 형이 숙이고 형이 잘 알아.

<조사자 : 예. (고개를 끄덕인다)>

요 울레(손가락으로 가르킨다) 가면은 흠애미섬이라고 납작한 섬이 있어.

<조사자 : 흠애미섬 마썸? 형제섬쪽 옆에 마썸? 아! 예.>

옆이 쪽 가면 여기 못 봐.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어머니나 아버지 죽으면 옛날 너네는 모르지만 너네 시집가든 크민 다 안다. 짝뚱이라고 웁 그래서 형제섬에 상제가 삼제가 사서 이렇게 방 빌 때 집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 앞에 이런거 이런 거 짚으로 묶은 거 놔 있어.게민 또 마라도논이 뭐냐면이.

<조사자 : 일리당 있잖아 마썸?>

그 일리당이 아니고.

<조사자 : 요기 요기 마라도 말고 여기.>

아 여기서 당 그자 예전 거시기한 당밖에 더 이서.

<조사자 : 여기 당들은.....>

웅. 여기 당은 뭐 혼 일리에 그자 영정이나 나오민 편안하민 집에서 들 그자 아이들 돌양 집에서 편안하서 게문 메레오 강 흐끔 영 흐곡 허난.

<제보자3>

19. 형제섬 이야기 (2)

<조사자 : 형제섬 있잖아예. 형제섬이 그 섬이 돌이 두 개라 섬이 두 개라 해 가지고 두 형제라고 하잖아예.>

그렇습죠. 저기 형제도의 유래란 것은 옛날 그 용이 두 개 씹다가.

<조사자 : 여인요?>

용 용. 아마 용이 두 개 씹다가 우뚝 솟았다 하는 그 전설. 음 그렇지.

<조사자 : 뭐. 이거 이것 뭐지? 섬에 대해서 얘기 대개 많던데, 이게 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는 섬이 세 개라서 삼형제?>

그 뒤에 약간에 비추는 그 부속은 좀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외부상으로 볼 때는 형제섬 이라 형제섬이라 하지요.

<제보자4>

- 조사자 : 문정숙(95), 용경미(96), 이효진(96), 차승미(96), 최미연(96), 서원희(98)